

관광·해양분야 CK사업 동반 탈락 ‘후폭풍’

〈대학특성화〉

정원감축, 외부컨설팅 통한 학과평가 하고도 결과는 기대 이하

사업 보고서 내용 및 발표에서 최후선택 당락 가른다

지난 6월 30일 대학특성화(CK·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사업 발표 후 대학의 명암이 바뀌고 있다. 우리대학은 4개 사업단이 선정돼 5년간 180억원(연 36억원)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모든 학과의 회생을 강요하며 외부컨설팅, 학과평가, 정원감축 등 특성화 사업 선정에 준비했으나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또 우리대학의 지원금액이 같은 권역의 전북대(70억원), 전남대(59억원)는 물론 사립대인 원광대(38억원)와 호남대(37억 9000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거점국립대학이지만 지원금액은 이 권역에서 다섯 번째다.

선정 결과에 가장 충격적인 점은 지역전략 유형에서 창의융합 제주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단(단장 홍성화 관광경영학과 교수)과 대학자를 유형에서 대형 사업인 기후변화 대응 해양Bio 인재양성 사업단(단장 여인규 수산생명의학전공 교수)의 동반 탈락이다. 또 국가지원 국제화 부문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글로벌인재 양성사업단(단장 김희철 무역학과 교수)이 탈락했다. 관광과 해양은 제주지역의 주력산업이며 특히 지난

해 대학분부는 관광과 해양을 특성화 분야로 선정했다. 또한 이 분야들은 이전까지 각종 정책 사업에서 선정돼 이번 특성화 사업 선정에도 기대가 컸었다.

해양분야는 목포대와 군산대가 선정돼 우리대학의 사업 프로그램 경쟁력이 비교우위에서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호남·제주권 대학들은 특성화사업 신청과 함께 평균 9.2% 정원감축이라는 조강수를 뒀다. 정원감축으로 얻는 가산점의 차이가 없다보니 사업 당락이 프로그램에 따라 결정됐다는 것이다.

양덕순(행정학과 교수) 기획처장은 “호남·제주권역 대다수의 대학들이 해양산업과 관광분야 사업단을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했다”며 “더 이상 이 분야들이 제주만 갖는 독점적 주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 사업단의 정량지표는 우수한데, 보고서 내용 및 발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사업단이 차별성을 갖고 지역 산업간 연계와 지역 산업을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는지가 성패의 원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역전략과 국제화 부문의 당락에서 지원액의 차이가 난 것”이라며 “우리대학의 1인당 수혜액은 전국 5위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선정된 사업단은 스마트그리드와 청정에너지 융·복합산업 인력 양성사업단(단장 이개명 전기공학과 교수·연 16억원), 아열대 농생명 융·복합산업 인력 양성사업단(단장 이동선 응용생명공학전공·연 14억원), 제주문화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단(단장 김동진 사학과 교수·연 3억원), 생물다양성 기반 천연화장품산업 인력 양성사업단(단장 이남호 화학·코스메틱스학부 교수·연 3억원) 등이다. 강경태 기자



제주대의 특색있는 하계계절수업이 타 대학 학생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교류 학생들이 김진현(체육학부) 강사의 지도에 따라 스낵스쿠버 실습을 하고 있다. 강수빈 기자

제주대 동문, 6·4 지방선거 29명 당선 영예



김우남 위원장 이석문 교육감 신관홍 의원 김희현 의원 강경석 의원 김명만 의원 이선화 의원 홍기철 의원 안창남 의원 고충홍 의원



하민철 의원 김태석 의원 이상봉 의원 박원철 의원 김경학 의원 손유원 의원 김용범 의원 위성곤 의원 한정화 의원 허창욱 의원



고용호 의원 구성지 의원 이기봉 의원 김영보 의원 홍경희 의원 강익자 의원 부공남 의원 김광수 의원 강성균 의원 강시백 의원

김우남 의원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경영학과를 졸업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국회의원이 지난 6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에 선출됐다.

또한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제주대 출신 당선자가 총 29명이 배출됐다. 당선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교육감 △이석문(영어교육과 졸업) 총 1명 ▲제주도의회 의원 △신관홍(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2기) △김희현(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9기) △강경식(경영대학원 관광경영 박사과정 수료)

△김명만(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과정 16기) △이선화(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석사 재학) △홍기철(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과정 14기) △안창남(경영학과 졸업) △고충홍(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과정 18기) △하민철(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과정 24기 재학) △김태석(행정학과 졸업) △이상봉(통신공학과 졸업) △박원철(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졸업) △김경학(행정학과 졸업) △손유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7기) △김용범(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재학) △위성곤(행정대학원 정

치외교학과 석사 졸업) △현정화(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졸업) △허창욱(최고농업경영자과정 9기) △고용호(어로학과 졸업) △구성지(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과정 27기) 총 20명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이기봉(산업대학원 전자전기공학과 석사 졸업) △김영보(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5기) △홍경희(행정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졸업) △강익자(최고농업경영자과정 27기) 총 4명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부공남(산업대학원 고급환경전문가과정 12기) △김광수(수학교육과 졸업) △강성균(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 졸업) △강시백(교육대학 졸업) 총 4명 부찬우 기자

제주대 7월 1일자로 인사 단행

교무과장에 박근배 서기관 발령

제주대가 지난 1일자로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1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서기관 1명과 사무관 16명에 대해 이뤄진 이번 인사는 다음과 같다.

▲서기관 △교무과장 박근배 ▲사무관 △학생복지과장 이상원 △입학관리과장 진순화 △학사과장 이예일 △자연과학대학 행정실장 양유호 △사회과학대학 행정실장 이수인 △경상대학 행정실장 신종우 △해양과학대학 행정실장 고태규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장 강철순 △사범대학 행정실장 조성로 △공과대학 행정실장 하봉현 △교육대학 행정실장 진승완 △간호대학 행정실장 윤영순 △산학협력단 한상준 박소연 기자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과 학술 협정

제주대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총영사 스즈키 미츠오)은 지난달 17일 제주대에서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와 교류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양국 기관간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학술교류, 공동 회의, 세미나, 실습 등의 학술활동을 추진기로 했다. 협정 체결식에는 허창진 총장, 강영훈 국제교류본부장, 이창의 인문대학장과 스즈키 미츠오 총영사, 다니가와 마사야 수석영사 등이 참석했다. 강수빈 기자

알립니다

〈제주대신문〉, 〈The Islander〉논설위원 초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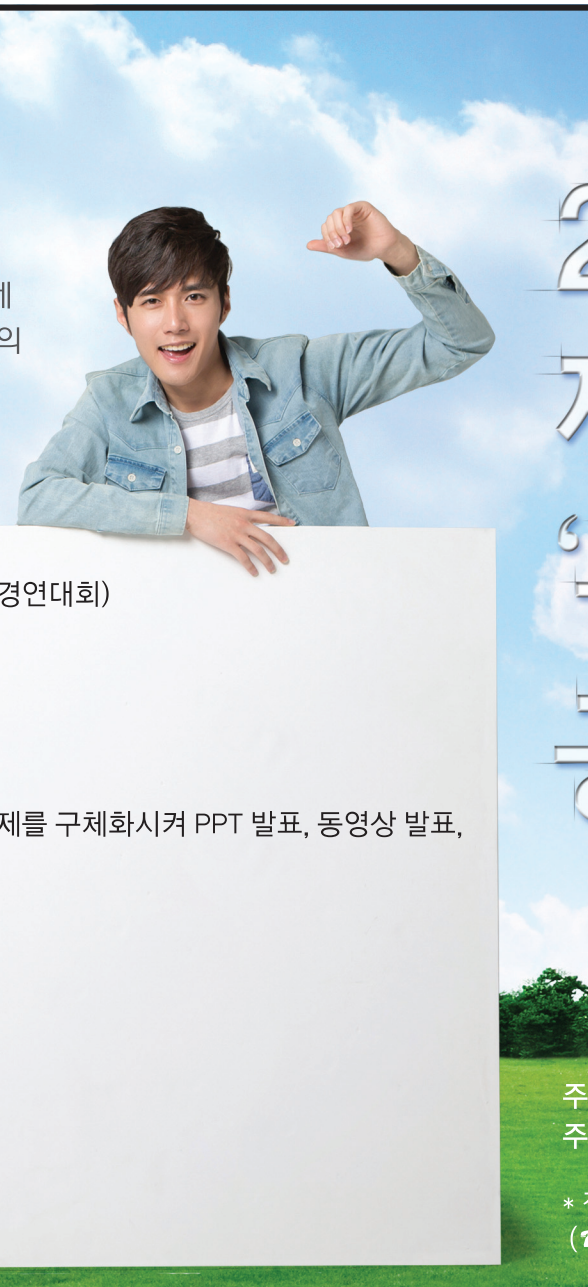
대학 구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의 형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대신문>과 <The Islander>의 논설위원을 모집한다. 논설위원은 연 2회 정도의 <제주대신문> 사설 또는 <The Islander> 영문 사설(editorial)을 집필합니다. <제주대신문>은 연 23회 발행, <The Islander>는 연 1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대신문은 10여명, 영자신문은 약간 명의 논설위원을 초빙하려고 합니다.

정간 60월에 달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제주대신문>, <영자신문 The Islander>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논설위원 초빙에 교원 및 직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각 해당분야의 높고 풍부한 식견과 신선한 시각을 가진 교원 및 직원분들로 구성되는 논설위원진은 급변하는 대학사회 환경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는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접수 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2014년 7월 9일(수) ~ 8월 8일(금)
2. 자격: 조교수 이상 교원 및 직원
3. 혜택: 소정의 원고료 및 봉사실적(총장 임명 직위)
4. 문의: 신문방송사 ☎754-2282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민주평통제주지역회의는 청년위원회 주관으로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학생 통일문제 경연대회를 실시하니 제주지역 대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전을 기대합니다.

2014 제주지역 대학생 ‘통일을 말하다’ 공모전

- 1. **행사명** : 2014 제주지역 대학생 ‘통일을 말하다’ 공모전(경연대회)
- 2. **행사내용**
 - 주제: 대학생들의 통일 대박 담론 공감대 확산 방안 통일 한반도의 미래와 나의 미래상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통일’ 기여방안 기타 통일과 대학생 관련 주제
 - 프로그램: 2~3인으로 조를 구성하여 위의 열거한 주제를 구체화시켜 PPT 발표, 동영상 발표, 미니연극 등 장르 구분 없이 발표
 - 발표시간: 20분 내외
- 3. **기간**
 - 작품 제출: 2014. 9. 19(금)
 - 작품 제출은 이메일 및 사무실 방문 접수
 - 경연 대회: 2014. 9. 26(금) (* 장소는 추후 공지)
- 4. **시상**
 - 최우수상 1팀: 40만원 상당
 - 우수상 2팀: 30만원 상당
 - 장려상 2팀: 20만원 상당

주 최: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주 관: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청년위원회

* 접수 및 문의처: 민주평통제주지역회의 행정실
(☎ 064-710-6976, E-mail: hoyajoi@nate.com)

사설

연구 윤리가 사회 윤리이다

희망차게 시작되었던 2014년은 절반이 훌쩍 넘었고 일부 학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는 1학기가 마무리되고 하계 계절학기가 진행되고 있다. 한 학기가 끝나고 여름 방학이라고 하면 보통 즐거운 기운과 느긋함이 캠퍼스에 넘쳐 나야 하는데 올해는 예전과는 다르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우리 사회는 모두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처음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느꼈던 슬픔과 안타까움은 시간이 지나고 사건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공포와 분노로 바뀌었고 진행되는 재판을 지켜보면서 체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이다. 개인, 학교, 전체 사회가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는 동안 정부에서는 제2기 내각 구성을 위한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살펴보면 나라에 큰 사건사고가 있으면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경질해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게 되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후보자를 찾기 위한 일대 소동 끝에 정총리가 유임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다른 내각 구성원들의 인사 청문회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입장에서 관심이 가는 것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관한 것이다. 현 정부에서 국가개조의 주요 축 중 하나로 사회부총리를 신설하고 후보자를 내세웠으나 여러 가지 의혹이 불

거지면서 의혹 규명을 위해서 인사 청문회의 증인만 9명을 내세우는 등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기된 의혹만 해도 연구실적과 연구비 부당수령, 논문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칼럼 대필 등 주로 연구윤리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검증이 진행되고 있으니 확인될 때까지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맡기기에는 쏠아지는 의혹만으로도 그저 한숨만 나올 지경이다.

연구윤리에서 연구비 사용 윤리만큼 중요한 것은 오서십(Authorship)이다. 대부분의 연구지침에서 제1저자 및 교신저자, 공동저자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으며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공저자로 포함하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를 연구 부적절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 대학에서는 대학 구성원의 복무관리 및 연구 윤리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매년 연구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잊을 만하면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 모음집을 게시하는 등 대학 구성원의 청렴도 향상을 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대학의 노력과 함께 중요한 것은 연구자 개개인의 노력일 것이다. 사회 윤리의 개선을 위해 먼저 우리 대학 내의 연구윤리에 대한 자정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다.

방학생활 시간 활용법

방학이란 더위나 추위를 피하여 공부를 쉬는 시간을 일컫는다. 1년 365일 하루도 고삐를 늦추지 못하고 공부에 전념하던 고등학교 시절을 막 끝낸 대학생 내기들은 20여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학기 중에도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는데, 3개월이나 되는 방학에는 소위 팬봉에 빠지고 만다.

대학생대기들이 12년간의 공부하기를 통해 얻어낸 대학생이란 자격증은 사회에 나가기 전 심리적 유예기간이라고 설명한 학자가 있다. 4년이라는 유예기간 중에 지나긴 방학이라니 이것을 금상첨화라 한들 크게 잘못되지 않은 말일 듯하다.

방학을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관리하는 일에 능숙해야 하는데, 자칫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개강을 맞이하기 십상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것은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 방학이란 시간은 토익 점수를 취입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목표치에 올리거나, 한 달간 아르바이트 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남은 한 달간 배낭여행을 다녀오기도 남은 시간일 수도 있고, 아무런 성과없이 후회만 가득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시간을 후회 없이 활용하기 위해선 우선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혹자는 방학계획을 6개월 이전에 세우라고 권고한다. 지난 겨울에 이미 이번 여름방학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도 그

럴 것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외국어 학원을 등록하는 일도, 노른자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일도, 저렴한 여행티켓을 구하는 일도 먼저 준비하고 서두르는 이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올 겨울 방학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자.

날마다 행하는 규칙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도 성공한 사람들이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정하거나, 기상하면 단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한다거나,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다이어리에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고 정리하는 등의 습관을 길러보자. 이리하면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벗어나 자기주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일종의 한가한 시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영혼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방학 동안만이라도 한가로이 길을 걸닐거나 고독에 자신을 내던져 보아라. 이때는 이어폰을 귀에 꽂지 마라.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아라.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만 동시에 내면에 침잠할 수 있는 고독에 시간을 내어주어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외국어 점수나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이다. 방학이라는 여유로운 이 시간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내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게 된다.

도서관 ‘사석화(私席化)’ 아직도 사라지지 않아

학생들, 좌석배정기 통해 배정받지 않고 무단이용 규정과 달리 솜방망이 처벌로 근본적 해결 안돼

도서관 열람실에서 일부 학생들이 자리를 독점해 이용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자리를 맡아 주거나 책상 위에 서적들을 쌓아놓아 다른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대학 도서관에서는 열람실을 이용하려면 좌석배정기를 통해 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배정기를 이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열람실 좌석에 앉는다.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분자생명공학전공의 한 학생은 “시험 2주전부터 도서관 자리 쟁탈전이 시작된다”며 “책상에 짐을 놓고 자리를 비워 다른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좌석배정기에서 번호표를 받고 지정된 자리에 가면 학생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

했다.

‘암체’ 학생들을 단속하기 위해 도서관 자치위원회는 자리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시험기간에는 매주 불시에 정리를 한다고 밝혔다. 수거한 물품들은 물품보관소에 보관되며 한달이 지나면 책을 제외한 물품들은 폐기처분된다.

문정모 도서관 자치위원장은 “원활한 도서관 질서를 위해 자리정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면학 분위기에 폐를 끼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이용자들의 양심어린 행동과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서관은 좌석배정기에서 자리를 배정받지 않고 열람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퇴장을 시키고 있다. 도서관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도서관 질서를 문란케 한 이용자에 대해 일정



제2도서관에서 한 학생이 좌석배정기를 통해 자리를 배치받고 있다.

기간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규정과 다르게 솜방망이 처벌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2008년 8월 19일 사회화와 관련해 도서관 규정을 새롭게 개정했다. 이듬해 9월 자리를 독점한

학생에게 ‘도서관 30일 출입금지’라는 징계를 내렸다고 알려졌다.

진우석 도서관 자료관리과 팀장은 “앞으로 도서관 열람실을 무단으로 사석화해 이용하는 학생들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무단이용 학생들을 신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승규 기자

총장추천서 발급 “방안 찾겠다”

타 국립대 행정실에서 처리해

대학본부가 총장추천서 문제에 대한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한 가운데 타 대학의 경우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5일자 제주대신문(909호)은 사라캠퍼스 학생들이 총장추천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아라캠퍼스 대학본부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지적했다. 하지만 아직도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총장추천서 발

급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부산대, 경북대, 충북대, 강원대, 경상대, 전북대 등 대부분 국립대에서는 우리대학과 같이 본부 외의 다른 캠퍼스에 총장직인을 두지 않아 총장추천서 발급에 학생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대해 부산대 밀양캠퍼스에서 총장추천서 발급을 각 학과 행정실에서 모아 일괄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부산대의 경우 캠퍼스간 거리가 우리대학보다 멀다. 개개인의

충북대 교류연수단 제주대 방문

3일간 제주지역 문화 탐방

충북대학교 교류연수단(단장 조성구 학생처장)이 8일 제주대를 방문했다.

연수단은 대학 행정조직과 학생자치기구의 운영 실태를 비교하고 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상호 정보교류 등의 목적으로 방문했다.

우리대학과 충북대는 1990년 2월 23일 ‘교류 계획 협의서’를 체결했으며 25년간 교직원과 학생간의 상호 방문 견학을 이어왔다.

이창윤 학생지원팀장은 “매년 진행되는 방문을 통해 직원들은 학생복

학생들이 직접 본부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어 행정실에서 직접 본부에 전달하거나 팩스 등으로 처리한다. 경북대, 충북대 등 타 국립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시하고 있다.

이창준 교육대학 교학지원팀장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타대학 사례들을 연구해서 구체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부찬우 기자

소록도병원서 봉사활동

교직원 5명·학생 15명 참가

제주대는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전남 고흥 소록도에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교요희(수학교육과) 학생처장 등 교직원 5명과 학생 15명 등 20명이 참여한다.

봉사단은 소록도에서 환자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력 봉사과 음식 및 환경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병 환자들의 진료, 요양, 복지 및 재활 자원과 한센병 연구업무를 하고 있는 곳으로 1916년에 설립됐다.

부찬우 기자

제주대-육군사관학교

학술교류협정 체결



제주대가 지난 6월 20일 육군사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양측은 교수(교직원)와 학생(생도), 학술과 교육·시설이용에 관해 협력하게 된다. 또 공동연구와 학술교류 행사 개최, 학술자료·출판물의 교환이 이뤄진다.

허향진 총장은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해 육군사관학교와 함께 노력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학술, 연구 부분에서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허향진 총장, 김익상(초등영어교육전공 교수) 부총장, 양종수 육군사관학교장, 박광래 교무기획처장, 김순수 안보관리학과장이 참석했다. 김해건 기자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최낙진	편집국장 강경태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제34회 백록학술상 공모

신문방송사에서는 제주대신문 창간 60주년을 맞아 제34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공동논문의 경우 3인까지만 가능함.
- 응모분야 : 일반논문 A4용지 10-30매 내외로 작성하고, 백록학술상 응모시 논문을 현장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 파일을 이메일 press@jeju.ac.kr로 제출해야 함.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졸업논문 응모가능
※원본 파일은 본인 이름,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
- 시 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7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40만원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수마감 : 2014년 12월 15일(월) 18:00까지
-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당선발표 : 2015년 신년특집호(2015년 1월 1일자)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제12회 제주대학교 영상제

- 일 시 : 2014년 9월 18일 목요일 오후 5시
- 장 소 :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 구 성 : 제주대학교 영상 공모전 / 총 행사시간 100분
- 공모주제 : ‘청춘’을 주제로 한 10분 내외의 자유영상물
- 모집기간 : 2014년 5월 15일(목)~ 9월 3일(수)
- 참가대상 : 전국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시상내역 : 대 상 전체 참가자 중 1인 혹은 1팀 총장상 및 상금 60만원 수여
최우수상 중·고등부/대학생부 각각 총장상 및 상금 25만원 수여
우 수 상 중·고등부/대학생부 각각 총장상 및 상금 15만원 수여
- 접수방법 :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http://jeju.ac.kr 접속 후 제주대소식에서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후 첨부 서류와 함께 작품(6mm 또는 DVD)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 :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교육방송국
- 문의사항 : 064)754-2284, 휴대폰 010-2889-6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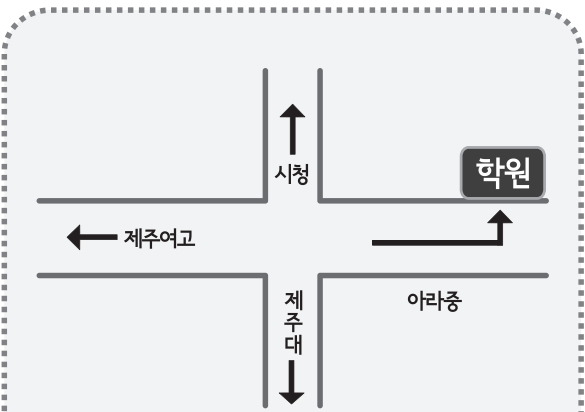
※제출한 작품 반환되지 않으며 입상 작품의 저작권은 JEBS에 귀속 됨. 영상시간 초과 시 감점 요인이 됨.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사회과학대, 학생 동의 없이 학생사물함 이동

행정실 “공공장소로 이해해주길”

학생들 “일방적인 사업진행 불만”

지난 6월 사회과학대학 2층 중앙에 자리했던 학생용 사물함이 행정실 측의 일방적인 자리 이동으로 학생들의 불만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론홍보학과 학생들은 3월초 학생용 사물함 위치가 변경된다는 소식을 듣고 행정실 측에 문의하자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오면 그 때가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중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학생들이 사물함이동 반대 입장으로 중지를 모아 행정실 측에 전했지만 “이미 액자 등을 구입해서 사물함 위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행정실 측은 곧 학생들과의 당초 약속을 깨고 지난 5월말 학생용 사물함을 전산실 왼쪽으로 자리이동 시켰다.

김아영(언론홍보학과 3)씨는 “사물함을 이동시킨 사실보다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치 변경을 강행했다는 것이 불만”이라며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인 만큼



사회과학대학 2층에는 기존에 자리해 있던 학생사물함 대신 대형사진이 걸려있다. 박소연 기자

우리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했다고”고 말했다.

이정우(언론홍보학과 3) 학회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미리 자리이동을 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하지만 사물함 위치를 옮겨 미관상으로 좋아진 만큼 많은 사람을 위해 양보의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준 사회과학대학장은 “사회과학대학은 지도자 양성과정 등 공개강의가 많이 진행돼 공공재의 개념으로써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학생들이 공공을 위한 장소로 이해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주연 기자

무인식권발급기 도입... 간편한 작동으로 편의성 높여

6월 9일부터 발급기 3대 운영

카드도 신속히 결제 가능

학생회관 백두관 매점 앞에 무인식권발급기 3대가 설치됐다.

지난 6월 9일 발급기가 설치돼 점심시간 식권을 사기 위해 매표소 앞에 길게 늘어선 풍경이 사라졌다. 이번 발급기 설치로 인건비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됐으며, 카드 결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황우화 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지난 겨울 동국대와 한국외국어대 등 대학 방문시 무인식권발급기를 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도입했다”며 “앞으로 무인 시스템을 활성화 된다면 좀 더 추가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지현(독일학과 3)씨는 “항상 혼잡하던 점심시간이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식당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지난 6월 9일 학생들이 백두관 매점 앞 무인식권발급기를 이용해 식권을 발급 받고 있다.

다. 박세라(전기공학과 3)씨는 “현금보다 카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매번 식권을 살 때 카드결제를 하기가 미안했다”며 “이제는 소액도 무인발급기를 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무인식권발급기 도입은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김보라 기자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재일제주인을 말한다

재일제주인센터-오사카시립대 인권연구센터 국제심포지엄

재일제주인센터(센터장 김동진 사학과 교수)와 오사카시립대학 인권문제연구센터(센터장 시마 카즈히로 교수)는 지난 6월 21일 오사카시립대학 문화교류센터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재일제주인’을 주제로 공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재일제주인센터와 오사카시립대학 인권문제연구센터가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두 대학 간의 연구협력을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제주대는 △재일제주인과 오무라수용소(조성운 사회학과 교수) △재일제주인의 고향에 대한 기증과 주민들의 기억(김동진 사학과 교수) △이종적 고향인식을 중심으로 본 재일제주인 디아스포라(김치현 철학과 교수)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사카시립대학은 △재일 코리안과 부락문제(노구치 미치히코 교수) △부락해

방운동과 재일조선인운동(정영진 교수) △피폭자의 디아스포라(시마 카즈히로 교수)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정창원(사학과) 교수 외 3명의 토론자가 전체적인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했다.

김동진 센터장은 “단순히 협정만 맺어놓고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며 “재일제주인을 위한 연구를 내실있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서윤 기자

조수연씨 백록문학상 시 당선

소설부문 김지숙·김대현 가작

조수연(국어교육학과 2)씨가 제34회 백록문학상 시 부문에 당선됐다. 한편기사 4면 지난 6월 23일 마감된 백록문학상 시 부문에서 조수연씨는 ‘폭설’을 응모해 당선됐다. 당선작이 없었던 소설 부문에서는 김지숙(중어중문학과 4)씨의 ‘애자’와 김대현(국어국문학과 3)씨의 ‘뱃놈’이 가작에 뽑혔다.

시 부문 당선자에게는 총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소설 부문 가장 수상자 두 명에게는 소설 당선작 상금의 절반인 35만원씩 지급된다.

이번 백록문학상은 시 부문에 6명의 35편 작품이, 소설 부문에는 38명의 38편 작품이 접수됐다.

백록문학상 심사는 양영길 시인과 조종연 소설가가 맡았다.

강경태 기자

‘통일을 말하다’ 공모전

민주평통제주지역회의 주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가 9월 26일 ‘2014 제주지역 대학생 통일을 말하다’ 공모전(경연대회)을 개최한다.

공모전 주제는 ‘대학생들의 통일 대박담론 공감대 확산 방안’, ‘통일 한반도의 미래와 나의 미래상’,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통일 기여방안, ‘기타 통일과 대학생 관련 주제’로 나뉜다.

대회 참가는 2~3인으로 조를 구성해 주제를 구체화한 뒤 20분 내외로 발표하면 된다. 발표는 PPT발표, 동영상 발표, 미니언극 등 장르 구분 없이 구성할 수 있다.

작품 제출은 9월 19일(금)까지 이메일 혹은 사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경연대회는 9월 26일(금)이며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팀은 40만원, 우수상 2팀은 30만원, 장려상 2팀은 2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된다.

접수 및 문의=민주평통제주지역회의 행정실(☎710-6976)

강경태 기자

‘2014 백록담전’ 열려

미술학부 교수작품전

미술학부(주임교수 손일상 서양화전공 교수) 교수작품전인 ‘2014 백록담전’이 지난 6월 14일부터 4일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올해로 제41회를 맞은 백록담전은 제주도 현대미술의 방향을 제시하며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창작열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됐다.

강민석(미술학부 조소전공) 교수는 “전시 등을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이 작품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이 보고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미술학부 교수 7명과 강사 22명, 조교 1명이 참여해 설치작품 7점과 서예 1점, 회화 22점 등 총 30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김하윤 기자

(주)효성 전력 핵심설비 기증



6월 20일 (주)효성은 우리대학에 미래 전력 신기술 분야의 핵심 설비인 1MVA 스테콤을 기증했다.

(주)효성(대표이사 조석래)은 지난 6월 20일 제주대에 미래 전력 신기술 분야의 핵심 설비인 1MVA 스테콤(STATCOM)을 기증했다.

스테콤은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로, 전기를 보낼 때 전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전기 품질을 안정화하는 설비이다. 전기 흐름을 능동적으로 제어해 풍력이나 태양광 등 기상상황이나 발전소가 정지함에 따라 발전량이 급변하더라도 출력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해준다.

전기공학과(학과장 김호민)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이 장치를 이용한 스테콤 운용 실습 과정을 새롭게 마련한다.

이승민(풍력공학부 석사과정)씨는 “신재생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이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제로 장치를 보고 배우는 것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민선 기자

산학협력단-대림산업 상호협력 협약

산학협력단(단장 강훈 생명산업학부 교수)은 지난 6월 23일 공과대학 부설공장 세미나실에서 (주)대림산업(상무 박성윤)과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협약은 대림산업과 인적, 물적 연계를 통해 풍력발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체결됐다.

앞으로 대림산업은 우리 대학과 상호발전을 목표로 해상풍력에 대한 공동 연구과제 추진, 현장실습, 전문 개발 인력 양성, 도내 풍력단지 개발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훈 산학협력단장과 허종철(풍력공학부) 교수와 대림산업, 제



지난 6월 23일 산학협력단은 대림산업과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주도청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전지민 기자

수의과대학 동물무료진료 봉사활동



6월 25일부터 3일간 수의과대학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동물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여름방학을 맞아 수의과대학(학장 이경갑) 학생과 교직원들이 지난 6월 25일부터 3일간 서귀포시와 우도에서 ‘2014 하계 동물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수의과대학 임상교수 6명, 직원 2명, 학생 26명과 제주지역 수의사 10여명이 참가했다.

봉사단은 소 13두, 말 5두, 개 170두 등 총 188두의 동물을 대상으로 구충,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수의과대학은 “의료서비스를 통해 제주도내 양축농가는 의료비 부담을 덜었고 학생들은 동물사랑과 현장 임상 실습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찬우 기자

사람들

양영오(수학과) 교수
호남수학회 교육상 수상

양영오(수학과) 교수가 지난 6월 26일부터 3일간 조선대학교 주최로 열린 ‘2014년도 호남수학회 정기총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호남수학회 교육상을 수상했다.

교육상은 수학 교육을 해오면서 저술활동 등을 통해 인재양성에 공헌한 교수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양 교수는 “좋은 교육을 위한 연구에 더 힘써달라는 의미로 이 상을 받겠다”며 “수학의 중요성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33년간 교육에 종사하면서 2000~2003년에는 업적평가 우수교원, 2008년에는 강의평가 우수교원으로 선정됐다. 2010년에는 탐라 스승상을 받았다.

또한 2000년에는 제주 과학축전 집행위원장, 2001년에는 수학대전 주관교수로 활동했다.

강서윤 기자

강창희, 김원형 교수, 이동은 박사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선정

강창희, 김원형 교수, 이동은 박사(이상 화학코스메틱스학부)가 지난 8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제24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논문은 ‘2010년 분절고농도 황상의 입경별 화학조성 특성’으로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에 위치한 고산층정소에서 황사를 채취해 2010년 분절에 발생한 고농도 황사의 화학조성과 오염특성을 규명했다. 논문은 환경대기환경학회지에 실렸다.

시상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2014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진행된다.

정민선 기자

현정석(경영정보학과) 교수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현정석(경영정보학과) 교수가 지난 6월 20일 열린 한국지식경영학회 ‘2014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현 교수는 「모순해결 나비모형에 기반한 모순관계유형과 모순해결자원 분류(Classifications of Contradiction Relationship Types and Contradiction Solving Dimensions based on the Butterfly Model for Contradiction Solving)」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모순해결 나비모형을 통해 모순관계 유형을 사례별로 분류하고 해결방법의 차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 교수는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나비모형을 배워 어려운 과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현 기자

전성수(멀티미디어디자인 전공) 교수
희망플러스 행사 최우수 과제 선정

전성수(산업디자인 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 전공) 교수의 과제가 지난 6월 20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중소기업의 주최로 열린 산학연 희망플러스 행사에서 기술개발사업 R&D 부문 최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제주도의 화산토인 송이를 재료로 사용한 도자기이다. 도자기의 디자인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단, 감귤, 야생초들을 모티브로 제작했다.

전 교수는 “제주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을 높이 평가해 수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분야 중에 디자인이 수상작으로 뽑힌 것은 최초”라며 “그것이 제주도를 소재로 한 것이라 뜻 깊다”고 말했다.

한편 전 교수는 개인 또는 팀으로 2007년부터 세계3대 디자인상인 IDEA, iF, Red Dot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을 받았다.

전지민 기자

박여성(독일학과) 교수
‘학술부문 공감도서’ 선정

박여성(독일학과) 교수가 저술한 ‘응용문화 기호학’이 지난 1일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의 2014년 학술부문 공감도서로 선정됐다.

응용문화 기호학은 ‘몸, 매체 그리고 공간’이라는 테마를 통해 문화기호학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진단해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책이다.

박 교수는 “독자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공감할 수 있어 이 책이 공감도서로 선정된 것 같다”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해근 기자

장승희(초등윤리교육전공) 교수
‘학술부문 공감도서’ 선정

장승희(초등윤리교육전공) 교수가 펴낸 『유교사상의 현재성과 윤리교육』이 지난 1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뽑은 2014년 학술부문 공감도서로 선정됐다.

『유교사상의 현재성과 윤리교육』은 유교사상의 본질과 현대윤리, 유교사상과 윤리교육의 상생 등을 다뤘다.

이 책은 유교사상의 윤리학적 의미, 유교사상의 본질과 현대윤리, 유교사상과 윤리교육의 상생 등 3부로 이뤄졌다.

장 교수는 “유교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 책을 통하여 유교를 이해하는 길이 되고, 현대사회의 문제를 유교적 관점에서 생각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하윤 기자

제34회 백록문학상 당선작 발표

»시 당선작

폭설

조수연 (국어교육과 2)

감정이 내린다.
감정이 생기면 마음속에 한 방울씩 맺히고
감정들이 모이면 방울들이 모여서

감정이 씻겨 내려간다.
비가 쏘아아- 내리는 것처럼
마음속이 시원하게,
빗방울들이 하늘을 거쳐
지면에 닿아 흐르면서
모든 것을 쓸고 가는 것처럼
아무 것도 남지 않게.

하지만
여전히 감정은 남아있다.
고독하고 아픈 감정은
눈이 되어 겹겹이 쌓인다.
추운 날씨에 쌓인 눈이 어는 것처럼
고독하고 아플수록 단단하게,
깔끔하게 녹지 못하는 것처럼
정리하려해도 질적하게.

하루하루 변해가는 현실,
서로와 나에게 소홀해져가는 현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엔
혹한기가 찾아와 폭설이 내린다.



일러스트 송유진 (미술학부 2)

»시 심사평

표면적 언어와 은유적 언어의 구분 돋보여

이번 공모전에서는 소설에 비해 시 응모 편 수가 적었으며, 응모한 작품의 수준차가 너무 확연하였다.

조수연의 「폭설」을 당선작으로 뽑았다. 조수연의 작품은 표면적 언어와 은유적 언어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시적 문법」을 잘 구사하고 있었다. 사실 이번 작품에서는 일상적 어법과 시적 어법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작품이 많았다. 그리고 너무 익숙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진부해



양명길 시인

지고 신선한 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작품들도 더러 있었다. 시상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그 시상을 일상의 어감 고운 어휘를 나열함으로 말미암아 시적 긴장에 실패했다고나 할까.
조수연의 「폭설」은 단연 빼어났다. ‘눈(雪)’과 ‘감정’, ‘자연’과 ‘인간’의 등식을 통하여 시가 은유적 등가물임을 확인시켜주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이런 등식을 ‘현실’로 확장시켜 나가는 솜씨도 문학적 성장을 기대하게 해 주었다.
역사의식이나 시대, 사회의 소재일수록 일반 독자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다소 표면으로 내비쳐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겸허한 자세로 꾸준한 정진 부탁드린다.

»당선소감

기교 없는 담백한 시 통해 공감 얻으려 노력

먼저 보잘 것 없는 시작 실력에도 좋게 봐주셔서 당선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번 34회 백록문학상에 출품을 준비하면서 되도록 지나친 비유와 알 수 없는 표현을 피해 쉽고 단순하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들은 줄글 같이 편안하게 읽히면서 쉽게 공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2학년 1학기부터 들었던 ‘현대시학’ 수업 덕에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를 쓰는 것이 두렵고, 막상 어려운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편의 시를 쓰면서 시에 대해 자신감도 생기고, 표현도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미



조수연 국어교육과 2

흡한 시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소재와 주제로 시를 쓰고 싶습니다. 시를 쓰게끔 해주시고, 제 시를 보면서 아낌없는 칭찬과 비평을 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제 진심을 글로 통해 돌려 답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교 없는 담백한 시를 쓰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만한 진심을 전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시를 쓰면서 써지지 않는 표현들 때문에 골머리도 앓았지만 오랜 시간동안 생각하면서 생각의 깊이가 깊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시라고 하기엔 단순하고 밋밋하지만 제 진심을 시 속에서 발견해 부족한 솜씨의 시에도 손을 들어주시는 심사위원분들과 제가 항상 아끼는 가족, 친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올립니다.

»소설 가작

뱃놈

김대현 (국어국문학과 3)

1

“하여튼 틀림없어. 웅성이영 나가면 꼭 이빠이라. 아나우까, 성님? 허여.”

뭐가 좋다고 항구가 떠나가게 걸걸 웃어대는지. 그 웃음소리가 귀에 거슬린다. 하지만 서면삼촌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어서 뭐라 대꾸는 못하고 그저 입을 꼭 다물고 있을 뿐이다.

저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이던 어제까지 아버지와 서면삼촌은 근 열흘간 매일같이 방이 잡이를 나섰지만 다 허탕이었다. 한창 방어철인 요즘 그렇게 허탕 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된 모양인지 둘이 나가서는 열흘간 기름 값만 바다에 버려오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배를 탄 지 5년도 안 된 ‘낭만호’ 녀석들도 그 열흘간 이따금씩 낚아 올렸는데, 뱃놈 경력으로 서면삼촌만 22년, 아버지가 34년 둘이 도합 56년의 베테랑들이 허탕만 치고 오는 것이다.

서면삼촌은 5일째 허탕을 친 날 나에게 넌지시 배에 타기를 권유했었지만, 난 시내 친구네 잔치 먹으러 가야한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뒤꿈치만 뺐었다. 그랬는데 9일째 되던 날 우리집에 들이닥쳐서는 다짜고짜 내일 나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난 내뽕 이유를 미처 생각지 못해 우물쭈물 했고 그 바람에 둘과 함께 배를 탔던 것이다.

‘네가 타든 다 해결될 일이어. 삼촌이영 느네 야방 살리는 셈 치고 한 번만 타보자게. 야, 기름 값은 벌영 본전치기라도 해야할 것 아니냐. 이제 겨울도 오는데. 느네 집 보일라는 물려야지. 내일 동트기 전에 준비하고 이시아라.’

서면삼촌은 내가 배를 타면 꼭 만선이 된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었다. 사실, 내배려면 나중이라도 적당한 핑계를 댈 순 있었으나 서면삼촌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어 일부러라도 나간 것이다. 그랬는데, 이젠 다른 이야기도 필요 없게 되었고, 오히려 서면삼촌의 말이 맞았음을 거꾸로 내가 증명해준 꼴이 되어버렸다. 정말 환장할 노릇이다.

“삼촌, 오늘 우리집에서 식객이수다에.”

나는 걸걸 웃는 삼촌이 꼴 보기 싫어, 화제를 돌려보려 할아버지 제사이야기를 꺼냈다.

“아, 벌써 경 되어서냐? 알았져, 이땅 느네집으로 가껴.”

“아부지, 아부지도 알람지예? 오늘 식객날이란 일찍 오십시예?”

“.....”

아버지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대꾸도 없이 쇠말뚝에 뱃줄을 칭칭 감았다.

“방어, 봉구야방한테 넘기면 뉘 꺼여.”

뱃줄을 다 매자마자 가슴장화를 벗고는 배에 획 던져두었다. 그러고는 뱃뱃불을 붙이고 연기가 사라지기도 전에 잔걸음으로 항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허허, 성님두 참. 무어가 경 급해신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 급했는지는 삼촌이나 나나 잘 알고 있다. 아버지는 아마도 봉구네 아버지가 운영하는 만선횃집을 들를 것이고, 그곳에서 돈을 먼저 받고는 시내의 P 단란주점의 지하로 향할 것이다. 볼 보듯 뻔했다. 그 지하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M리 사람이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였다.

그곳은 입구에서부터 매캐한 담배냄새와 지린내, 막걸리 냄새가 진동을 했고, 안에서는 머리 희끗한 노인네들, 수염 덥수룩해 비린내 풍기는 뱃놈들, 훑대 땀내가 뒤섞인 농꾼들이 모여 포커, 설탕 같은 노름을 하는 곳이었다. 3년 전 쯤 옆 동네의 모 순경이 그곳을 드나들다 적발되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된 이후 조금 잠잠해지나 싶더니 작년부터 다시 문을 연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집보다 그곳을 자주 갔었다. 나는 아버지가 그곳을 갈 때마다, 집에서 일면식도 없는 신에게 손을 모아 싹싹 빌었다. 오늘은 아버지가 돈을 따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하루치 뱃일해서 얻은 돈을 다 잃고 오는 날에는 어김없이 술에 절어 들어와 손찌검을 해왔다. 앓는 시늉을 해도, 정말로 앓고 있어도 가차 없었다. 내가 신에게 싹싹 빌 듯 엄마는 아버지에게 싹싹 빌었지만, 비는 데는 엄마나 나나 영 소질이 없었는지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때까진 그곳을 드나들면서도 배 열쇠는 놔두고 다녔었다.

아버지가 배 열쇠를 들고 그곳에 간 날, 엄마는 집을 떠났다. 사실, 엄마가 떠난 뒤엔 엄마를 더 원망했다. 나 혼자서 어떻게 아버지를 상대하라는 것인지... 15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 했다. 12년을 매일같이 맞으면 아무리 끈끈한 모정이라도 바래지거 마련인 것이다. 어쩌면 12년을 버틴 게 기적인지도 몰랐다.

“이놈의 손꼽대기!”

서면삼촌이 내 손을 세차게 쳤다.

“안 경 해도 뽕신 귀에 뽕신 손 더 뽕신 만들래? 귀

만지지 말라.”

“내뽕서. 날 때부터 뽕신인 것을, 더 뽕신 되몬 또 어뽕마썸.”

옛날 일을 생각할 때면 내 찌그러진 뽕신 귀를 만지작거렸다.

“말이나 못 하면....., 소주 한 잔 할 테냐?”

“삼촌은, 나 술 못 마시는 거 알면서도 경 험수까. 그럼서, 말동무라도 할 꺼냐.”

삼촌과 나는 봉구네 아버지가 운영하는 만선횃집으로 향했다. 만선횃집은 항과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우리의 주 거래처였다.

“웅성이 왔구나? 역시 오늘 웅성이가 배 탔었구나. 웅성이야방 일주일 넘게 코빠기도 안보이당 아까 만선 뻔했. 200만 먼저 달린 뎡게, 웅성이야방네 만선 뻔했 하면 웅성이가 배 탄 것이지. 아니냐, 서면야? 허여.”

엄병할. 또 그놈의 만선 이야기다. 봉구네 아버지도 우리 집안 내역을 다 알고 있었다.

“맞수다게. 야의(예)는 어뽕 된 건지 배를 안 타려고만 하는지.....”

“내불라, 요즘 아이들 다 시에만 나가젠 하지, 누게가 이 시골에 살뎡 배타고 싶어 하나게?”
사실 M리에 사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었다. 오히려 이곳이 좋았다. 먹고 사는 것도 막노동에 마늘농사면 그래도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됐고, 어릴 적부터 자라는 익숙한 풍경도 좋았다. 시골에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하여튼 삼촌, 소주 1병 줘서, 만선인디 기분 좀 내야지.”

삼촌은 기분 좋게 웃더니 별안간 정색하며 이야기했다.

“웅성야. 넌 노름하면 안 된다야. 알람지? 그 단란주점 지하에 가봤냐?”

“에, 예전에 아부지 찾으러 몇 번 가봤수다.”

“거기 이신 놈들이 사람새끼들이냐? 잠도 안자고 눈 시뻘겋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패 돌리는 게 사람새끼가 할 것이냐. 물레기 판 돈만 날리면 양반이라. 자동차영, 집이영 다 던져불고 폐가망신한 놈이 한 둘이 아니지. 농꾼들은 밭 던지고, 뱃놈들은 배까지 던져불면....., 느네 아부지도 경 해난 거 알람지? 처음엔 놀라간뎡 20, 30만원 씩 들고 가더니만, 100, 200 되는 거 순식간이고 나중에는 발이영 뿜영 다 팔아부

렸잖아. 그나마 우리 아부지가 성님네 아부지한테 빚진 거 있덴 그거 값는다고 지금 느네 집은 건졌주만은, 성님도 참. 웅성이 장게(장가)보낼 생각해야 할 거인디.....”

서면삼촌네와 우리집은 각별했다. 서면삼촌의 말을 들어보면 할아버지 때부터 이웃으로 살면서 서로 상부상조했다. 그렇게 각별한 사이라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서면삼촌네 아버지가 우리 뒤를 많이 봐주었고, 서면삼촌과 아버지는 지금까지 같은 배를 탔던 것이다.

“술은 너가 못하냐 그나마 다행이지. 느네 어머님이 영 너영 앞뒤 안 가리명 때리고 노름판에서 다 날려먹긴 했어도 본래 경헌(그런) 사람은 아니냐. 술이 웅수지.”

“게매. 그나저나 거참 신기해. 웅성이야방은 술푸데인디, 웅성은 어떻게 된 게 술 한모금도 못 마시는지.”

봉구네 아버지가 안주거리를 내오며 거들었다. 서면삼촌이나 봉구네 아버지는 내가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알고 있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다른 사람 앞에서 술을 마셔본 일이 없다. 심지어 어릴 때부터 같이 빨가벗고 물장구치며 놀던 봉구 앞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저, ‘술을 못 먹는다.’ ‘한 잔만 마셔도 바로 기절을 한다.’며 거짓부렁을 늘어놓았다. 그러던 사람들은 술푸대 아들이 술 못 먹는 게 말이나 되냐며 희화화하고 혀를 내둘렀다.

그렇지만 난 사실 술을 곧잘 먹었다. 나도 내가 아버지의 ‘술 유전자’를 답았는지 아닌지 궁금했던 것이다. 20살이 되던 해 소주 대엿 병을 사와 집에서 혼자 안주도 없이 툭툭툭툭 삼켜보았다. 그것들을 다 비우고 나니, 온 상상이 빙글빙글 돌면서도 생각만은 뚜렷했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답았다.

“웅성야. 나영 배 타자. 성님도 이제 얼마 못 탈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 부리명 할 바에야 같이 해난 너영 하는 게 낫지. 너영 바당 나갔다하면 꼭 이빠이란.....”

또 되도 않는 만선타령이다. 난 삼촌의 말을 더 듣기 싫어 말을 잘랐다.

“난 배 안 탈거우다에.”

“그러면 뭘 할 거냐? 지금이야 네 한 몸 쟁기는 것이라. 노가다 하면서 되는데로 살지만 평생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냐? 귀병신에 손병신을 누게가 썬 주다냐?”

이번엔 삼촌 쪽에서 말꼬리를 낚아챘다. 나는 손병신이란 얘기에 내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슬쩍 보았다. “거명이고 도저히 힘들텐 말하더라. 다른 데는 몰라도 엄지손가락은.....”

거명삼촌은 M리의 시계탑 앞에 위치한 유일한 이발소, 거명이발소의 주인으로 서면삼촌과 동창이었다. 거명삼촌은 깔끔하게 정리된 콧수염에, 일을 할

때면 언제나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서글서글한 인상 덕분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나는 제대한 이후 거명삼촌 밑에서 조수노릇을 1년간 했었다. 소주라 해봤자 이발소 청소, 잔심부름 정도여서 어려울 것은 없었다. 1년쯤 지났을 때 거명삼촌은 내게 이발소 돌아가는 것을 얼마쯤 알았으니 이발을 본격적으로 배워보라고 했다. 사실 나는 조수로 일하는 동안 거명삼촌이 이발하는 것이 재밌어 보여 어깨너머로 훑쳐볼까도 했었다. 거명삼촌은 그런 눈치를 챘던 것이다.

그 후 매일같이 이발소로 나갔다. 이발소가 쉬는 날에도 거명삼촌 몰래 이발소에 가 이발연습을 했다. 이발 연습을 할 때면 날 떠난 엄마나 아버지, 뱃일 같은 모든 잡생각이 사라졌다. 흰 셔츠를 멋지게 차려입고, 가발이 사각사각 부드럽게 잘려나가는 느낌이 좋았다. 그렇게 6개월 쯤 연습하니 거명삼촌은 내게 손님을 받게 해주었다. 단지 면도뿐이었지만 면도크림을 바르고 조심스레 손님들의 수염을 깎았다. 오는 손님들마다 그대도 술푸대가 아들하냐는 잘 두었다며 칭찬했다.

일은 내가 손님을 받은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 터졌다. 면도는 이제 눈을 감고도 할 정도로 손에 익었다. 거명삼촌의 머리는 이미 3개월 전부터 내가 맡아서 했고, 술술 이발 손님도 반아도 되지 않을가 싶었다. 거명삼촌의 허락만이면 남은 상황이었다. 거명삼촌의 허락이 떨어지면 난 이발사로 나의 인생을 보낼 참이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대낮부터 술을 잔뜩 마시고는 이발소로 찾아온 것이다.

“너 배 안 탈거몬, 내 돈 내놓으라. 너 키우는데 돈 한 두 톨 돈 줄 알람지? 빚진 건 갚아야지. 싸가지 없는 새끼.”

아버지는 유리 재떨이를 던져 거울에 던졌다. 쟁하는 소리와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옆집 구멍가게 아줌마, 앞집 세탁소 아저씨까지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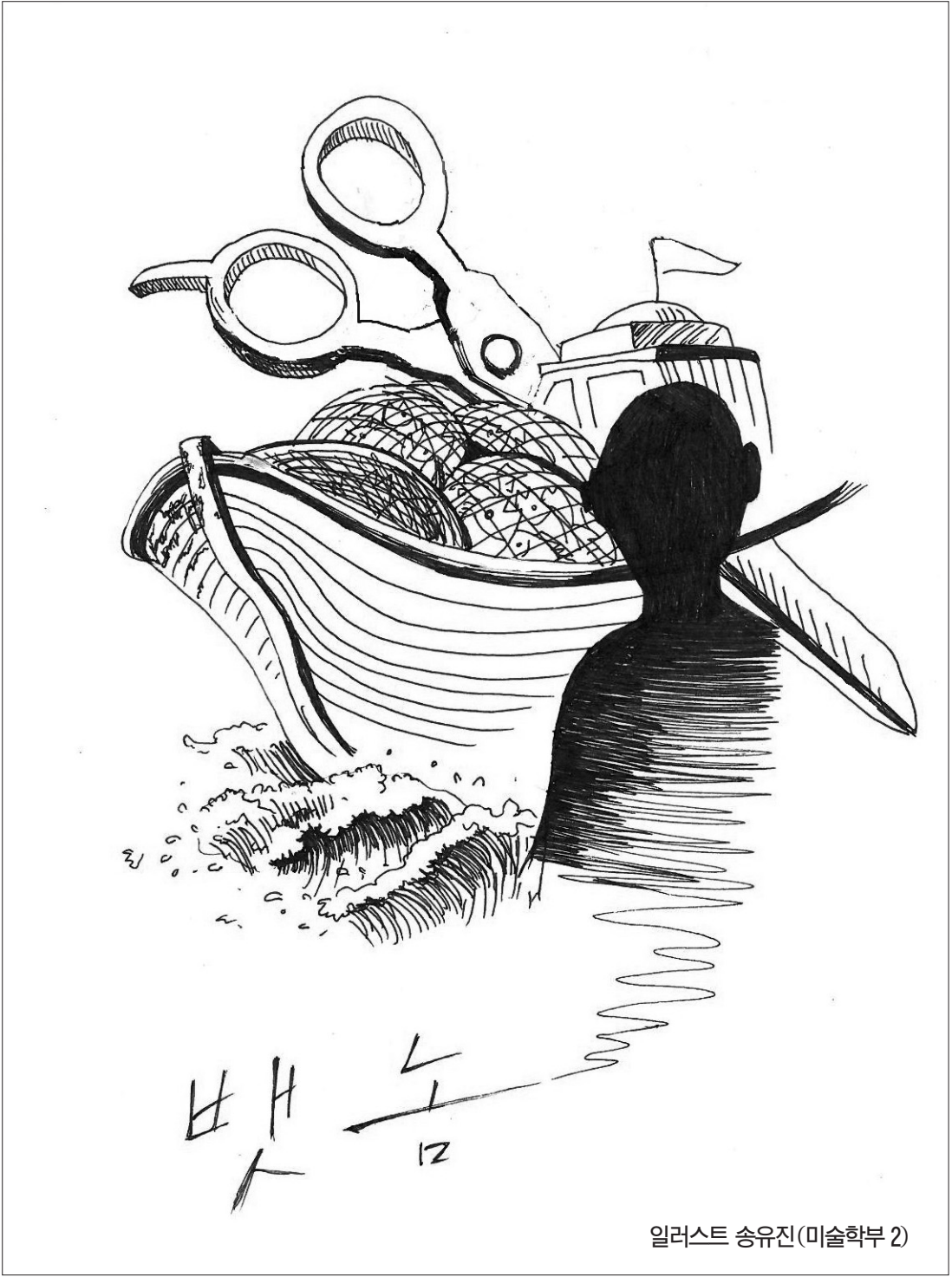
“성님, 술 깨고 다시 읊서. 무슨 말 하는 줄도 모르겠고, 남 일하는 곳에서 무슨 행패우까?”

아버지는 나에게 맡겨둔 돈이라도 있는지, 돈 내놓으라며 이발소에서 난리를 쳤다. 보나마나 노름으로 돈을 다 날렸을 것이다. 지금 당장 돈이 어디 있느냐고, 일단 취기를 가라앉히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해도 인사불성인 사람 앞에서는 소용없었다. 나와 거명삼촌은 아버지의 팔다리를 한쪽씩 잡고는 겨우겨우 말했다.

“웅성야. 안되겠다. 너 일단 내일 아버지영 배 한 번 타고 오라. 이거 거울 켜 가는 내가 알람 처리할 테니까.”

“제가 왜 배를 탐니까. 뱃놈도 아난데. 제가 타면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 일단 느네 야방 성질은 가라얏 <5면에 계속>



일러스트 송유진(미술학부 2)

혀야 될 거 아니냐. 내일 타고 오면 그래도 좀 덜하겠지.”

거명삼촌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거명삼촌도 내가 배를 타면 항상 만선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명삼촌은 하루 뱃일해서 아버지에게 돈을 좀 쥐어주고 오라는 이야기였다.

다음날 나는 꼭 오늘과 같이 아버지, 서면삼촌과 함께 배를 탔다. ‘나는 뱃놈이 아니’라는 말을 비롯듯 그물은 가득 찼다. 아버지와 내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서면삼촌도 어색한 분위기를 잊고는 신나게 그물 모터를 돌렸다. 나는 그저 빨리 뱃일을 끝내고 이발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웅성야! 손 치우라!”

서면삼촌이 소리를 질렀다. 서면삼촌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으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손이 따듯해졌다. 고통은 그 다음의 일이었다. 소리를 지르며 피가 쏟아지는 손을 붙잡았다. 엄지손가락은 그물과 함께 말려들어가며 으스러졌다. 서면삼촌이 신나서 돌리던 양망기는 피로 흥건히 젖었다. 나는 그 일로 진짜 병신이 되어버렸다.

“또, 손꼽데기! 만지지 말랜 하냐.”

귀에서 손을 떼고, 대신 행한 엄지손가락의 흔적을 만지작거렸다.

2

서면삼촌과 제사준비를 하고 있는데 명숙고모가 왔다. 근 5년만이다. 명숙고모는 내가 어릴 때엔 M리에 살았었다. M리 다방에서 일하다, 손님이었던 고모부와 눈이 맞아 결혼까지 했다. 결혼한 이후에는 육자로 나가 살았는데, 몇 년 가지 않아 고모가 병원비를 빌리러 찾아왔다. 고모부가 폐병에 걸렸다는 것이다. 서면삼촌이 그래도 얼마쯤 빌려주었는데, 투병생활 이랄 것도 없이 3개월 만에 죽어버렸다. 그 후로 연락이 닿았다 말았다가기를 반복하다 5년 전쯤부터는 아예 연락이 뚝 끊긴 것이다.

“오라방 언제 온다?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명숙고모가 통명스럽게 이야기했다.

“예, 이따가 올 거유다. 아버지 잠깐 어디 들르고 온다고…….”

“이 시간까지 안 오는 거 보란, 아직도 노름판 다녔시냐? 아버지 식객날인데…….”

명숙고모는 아버지의 술주정이며, 손꼽데, 노름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어릴 적 어마와 내가 맞고 있을 때 가끔씩 말려주곤 했던 것이다.

“곧 올 거여. 오늘랑은 속셈행 이시라. 오랜만에 얼굴 보는 건데……. 할 말 있어도 내일 날 밝으면 허라.”

서면삼촌은 명숙고모와 아버지가 싸울까 걱정됐는지 명숙고모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신신당부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오는 모양인지 앞집 개가 사냥개 짖어댔다. 녹슨 대문이 세차게 열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오랜만이유다.”

“…….”

명숙고모가 인사를 했지만 아버지는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놀라지도 않고 힐끗 쳐다보고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을 뿐이었다.

“문전 올리라.”

문 앞에 상을 가지고 왔다. 아버지는 상 앞에 무릎을 꿇었고 나는 술을 따랐다. 잔을 든 아버지의 손을 보았다. 인제 꺾였는지도 모를 손톱에는 까맣게 때가

타 있었고, 손등에는 살이 없어 핏줄이 그대로 드러났다. 알파란 손이었지만 한눈에도 악력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햇볕에 타 까매진 손등에는 세로로 긴 흉터와 함께, 낡싯바늘에 긁힌 수많은 흔적이 남아있었다. 엄지와 검지 손끝에는 화투짝을 얼마나 만졌는지 지문이 다 닳았고, 굳은살이 박이였다. 일평생을 다 담고 있는 손이었다.

“자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봐야지, 명숙야 그래, 잘 지내시냐? 아예 내려온 거냐 아니면 아버지 식계 때문에 잠깐 온 거냐?”

음복하는 자리에서 서면삼촌이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명숙고모에게 물었다.

“잠깐 내려온 거유다. 웅성이영 할 말도 있고……. 난 육지에서 장사하면서 잘 지냄수다. 서면삼촌은 잘 지냈지예? 그래도 서면삼촌이 있어서 든든해. 웅성이 잘 돌봐주어서 고맙수다.”

“내가 뭐 한 것이 있다고, 웅성이는 알아서 지 앞가림 잘해. 다만 배를 안 타려고해서 문제지…….”

서면삼촌과 명숙고모 사이에 두어 잔의 소주잔이 오가고 서면삼촌은 자리를 떴다. 명숙고모와 서면삼촌은 할 말도 별로 없었거니와 명숙고모가 자꾸 서면삼촌에게 가라는 눈치를 주었기 때문이었다.

“요즘도 노름판 다녔수까?”

서면삼촌이 가자마자 명숙고모가 쏘아붙였다. 나는 입을 다물고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연락 한 번 있다가 몇 년 만에 찾아온 이유가 나 노름판 다니는지 궁금해시냐?”

“오라방 노름판 다니는지 마는지는 내가 알 일 아니주만, 죽은 아부지영 웅성이 불쌍해서 와수다.”

“그렇게 불쌍해신디 연락한번 안 해보시냐?”

“오라방은 나 찾아보젠 해봤수까? 전화번호 바꿔 놓고 안 말해주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연락하라는 말 이우까?”

아버지는 소주를 들이키고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고모도 소주잔에 소주를 가득 따르더니 홀짝 넘겼다.

“돈 모으지도 않고 맨날 노름판이나 전전하면……. 노름판 좀 그만 갑세. 집, 배 날렸으면 할 만큼 해수다. 술도 작작 좀 드십세. 동네사람들 다 술푸대라고 험수다.”

“지 남편 잡아먹은 년이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너 결혼할 때 내가 네 녀은 여기 떠나면 안 된다고 안 골았냐(말했다)? 너 여기서 뱃놈이영 살았어야 돼. 아니면 혼자 살았든지. 죽은 네네 서방만 아무것도 모르고 뻘져서 불쌍하지. 네네 서방이 지금쯤 저승에서 널 저주하고 있을 것이다. 이 년아, 뱃놈 딸이면 당연히 여기서 뱃사람을 만나야주. 남편 잡아먹은 년이 어딜 기어 들어와서…….”

아버지는 눈을 부릅뜨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

“말도 안 되는 얘길 또 꺼냄수까? 그 생각으로 멀쩡하게 자기 길 찾아서 열심히 사는 아이, 병신 만든 게 누게우까? 웅성이 손가락락 병신 만들어서 이발질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아들 병신 만들어서 돈 버니까 기분 좋았수까? 그 돈은 또 어디 가수까? 또, 노름판 가서 던져 부렸지예? 말 안 해도 뻔해.”

작-

아버지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명숙고모의 뺨을 후려쳤다. 나는 깜짝 놀라 일어서서 아버지 쪽으로 엉겨주춤 팔을 뻗었다. 또 때릴지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숙고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바로 돌려 아버지의 눈을 노려보며 말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었다.

“사람 때리는 버릇은 여전하네. 예? 웅성이 어명이 웅했지. 이런 새끼랑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를 향해 살기를 내뿜던 명숙고모의 눈은 곧바로 향했고, 명숙고모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니지, 불쌍한 우리 웅성이. 우리 웅성이가 제일 옹하지. 어명도 없이 이제까지 혼자 어명 살았다. 인간도 안 된 저 새끼랑 어떻게 살았다, 이 말이며. 웅성야 고생했져. 고생했져.”

명숙고모는 나를 안고는 내 얼굴을 어루만졌다.

“웅성야, 나랑 가자. 나랑 이 비린내 나는 연을 같이 끊자. 나랑 육지로 가자. 육지로 가서 나영 살자. 너 장게도 가고, 돈도 모으고 남들처럼 살아보자.”

“웅성이 못 간다.”

듣고만 있던 아버지가 말했다.

“웅성이 나랑 갈 거유다.”

“우리 아버지 어떻게 죽은지 모르더냐? 남들 다 산 사람, 토벌대 피해서 바다로 내려오는데 혼자 산으로 올라갔다가 죽은 거 아니냐. 자기의 대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별 희한한 소리를 하더니만 결국 어떻게 됐나? 그 때문에 어명도 죽어버리고 나영 나영 생고야로 자란 것 아니냐. 조용히 뱃일만 하면서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뱃놈이 어명 바다를 떠난다는 말이나. 뱃놈이 바다를 떠날 살면 뻘질 각오는 해야지. 웅성이 뻘진 건? 아 때문인 것 님으냐? 지가 지 스스로 만든 것이라.”

“허튼소리 하지말세. 남도 아니고 아들한테 찾아가서 자기 노름할 돈 내놓으라고 지랄병을 하는 아방이 어딴수까. 그놈의 노름은 엄병.”

“노름, 노름 하지마라. 내가 하는 것은 노름판 아니더냐? 바지사장 얹혀냥, 테레비로 노름하게 해둔 게 무신 장사냐. 아무소리 안하고 이시난, 누게는 귀 막고 눈 감은 줄 알람시냐. 촌구석에 가만히 있어도 다 들려.”

텔레비전으로 노름한다는 건 아마도 작년부터 M리에도 스멀스멀 생겨났던 불법게임을 말하는 듯 싶었다. 사실 명숙고모가 장사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단란주점을 한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자세히 묻지 않았는데 명숙고모는 단란주점이 아니라 불법게임을 했던 것이다. 명숙고모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지만, 돈을 착실히 버는 쪽은 아니었다.

어찌되었든 상관없었다. 불법도박장이든 노름판이든 뱃놈은 아니다. 세상에 뗏뗏한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난 이발도 평생 못할 것이고, 여기서 이대로 있다가 결국엔 뱃놈의 혈통을 끊지 못할 것이다.

“아부지……”

겨우 입을 떼었다. 몸은 다 컸지만, 아버지가 성났을 때 나는 여전히 매 맞는 꼬맹이였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쩌면 이것은 어릴 적 나의 기도를 아직 기억하고 있는 신이 준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랐다.

“저……. 명숙고모랑 육지 가쿠다.”

“뱃놈의 피가 어딜 간단 말이나!”

“난 사실 배타는 거, 싫수다. 아부지, 나 병신 만든 것, 빗 값는다고 생각하고 한번만 보내주십세.”

“이 자식이!”

아버지는 나에게 달려들어, 목살을 잡고는 뒤로 세차게 밀쳤다. 나와 아버지는 순식간에 뒤엎졌고 상처림은 뒤엎여졌다. 아버지는 내 목을 팔꿈치로 누르고는 얼굴에 주먹질을 해댔다.

팡- 팡-

익숙한 리듬이었지만 힘은 많이 줄었다. 세월을 이길 이는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주먹질을 할 때는 늘, 정권부분이 아니라 주먹 쥔 손날부분으로 때렸다. 나는 예전과 같이 능숙하게 얼굴을 팔로 감싸고 아버지가 주먹질을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

“그만해. 이 개새끼!”

명숙고모는 내 위에 올라타 있는 아버지를 끌어당기며 소리쳤다. 끌어당기다 힘에 부치니 손바닥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네 새끼도 아니잖아, 이 개만도 못한 새끼!”

아버지가 주먹질을 멈쳤다.

“웅성야, 이 인간 느네 아방 아니다. 너랑 피한방을 안 섞인 사람이라고!”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얼굴을 잡았던 팔을 풀고는 명숙고모를 보았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니. 무슨 동판지같은 이야기인가. 아버지는 시체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를 얼른 떼어놓고 일어섰다.

“무슨 말이우까? 아부지가 아부지가 아니면…….”

나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아서 명숙고모에게 되물었다.

“네네 진짜 아방은 따로 있고, 이 인간은 네 아버지가 아니다. 네네 어명이 너 포대기에 싸서 다니다가 네 아방이랑, 아니지, 저 인간이랑 살았는디. 그러다 네네 어명이 너 버리고 가버리니까 그저 계속 같이 살았던 거라.”

그러니까, 내 25년의 악몽 속 주인공이 나와는 전혀 피한방을 섞이지 않은 이었다는 말인가? 나와 이 사람의 연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었다는 말인가? 엄마는 또, 날 피한방을 섞이지 않은 사람에 게 맡겨두고 혼자 떠났다는 이야기인가?

세상 참 재밌다. 혈육의 연은 12년 만에 잘려버렸고, 팔자에도 없는 이 지긋지긋한 악연은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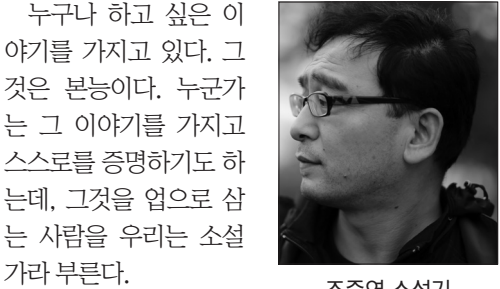
“그러면 내 아버지는 누게우까?”

당연한 물음이었다. 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나의 근원은 누구라는 말인가?

“나야 모르지. 네네 어명이 알겠지. 네네 어명이 언제부터가 장에서 장사를 했고, 저 인간이랑 눈이 맞아, 결혼식 같은 것은 따로 안올리고 같이 살았으니

》소설 심사평

안정감과 가능성에 긍정적인 의미 부여



조중연 소설가

누구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본능이다.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얻으로 삼는 사람은 우리는 소설가라 부른다.

올해 백록문학상의 소설 응모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소설 부문에만 무려 38편의 작품을 보내왔는데, 이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야기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반증하는 것일 게다. 그러나 막상 푸경을 열 어본 순간,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했다. 작품을 하나하나 정독하면서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우리 시대 대학생들의 독서량이 왜 이토록 빈곤한가, 그렇다면 왜 과감하게 체험하지 않는가라는 물음이었다. 그러다보니 존중반야야 할 상상력이 조악한 수준으로 끼어들게 되고, 삶이 이토록 재미가 없는 것이었던가. 소설이란 게 이토록 재미없는 것이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작품들이 있었다. 「회고」, 「애자」, 「뱃놈」이 그것이다.

「회고」는 스토리텔링적인 요소가 강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만드는 힘이 있으나 그것이 꼭 미덕만은 아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얼마간은 전략적으로 서사를 풀어내고 있는데 그 외에 문학적인 요소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격적인 문학 수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오랜 기간(그 열정과 재능에 비하여) 고단한 길을 걸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는 예단을 조심스럽게 내려본다.

「애자」의 장점은 고등학교 시절의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잘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응모자들 또한 이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이 작품만큼 신선한 방식으로 접근하지는 못했다. 일정의 문학 수업도 거친 듯 보이나, 역시 소재 면에서는 너무 진부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 써야 하는 것이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 로 뒤틀리는 죽비소리. ‘결연하다’는 단어, 정편 소설에서도 한 단어를 두고 골라 서너 번 정도만 사용하는데 하물며 단편소설에서야. 좀 더 치밀한 독서와 문장 연습으로 단어를 적절히 바꾸어 가면서 정확하게 구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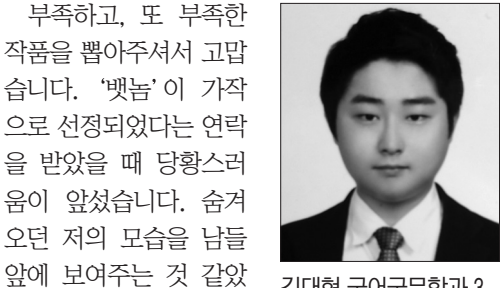
「뱃놈」은 가장 인상적인 작품이다. 무엇보다 제주어를 능청 맛깔나게 구사하고, 현장을 찰진하게 녹여내고 있다는 면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거의 모든 응모작품이 학교, 공항, 원룸 같은 폐쇄적이며 도회적인 느낌의 장소를 택했으나, 유일하게 제주도의 한 어촌마을을 열린 형태로 그리고 있다는 점 또한 미덕으로 꼽혔다. “하여튼 틀림없어. 웅성이영 나가면 꼭 이빠이라.” 라는 첫 문장부터 가치 압도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간 부분 드라마식의 ‘출생의 비밀’이 전개되면서 한순간에 맥이 풀려버린다는 점이다. 시원하게 관찮은 소설 한 편 말아먹었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고모가 조카를 육지로 데리고 나가서 시킨다는 일이 고작 게임장 ‘동전교환원’ 수준의 영벌이라니. 앞에서 던져놓은 출생의 비밀을 수습하려다 보니 이렇듯 개연성 없는 역지를 부리고 말았다. 구석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 응모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작품을 읽되, 작가들이 이야기를 풀어낼 때 사용하는 ‘전략적 서사(구성) 기법’에 대해 심사숙고해 봐야 할 것이다.

「애자」와 「뱃놈」을 두고 고민하다가 두 작품 모두를 가작으로 선정한다. 두 작품 공히 약점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자」의 안정감에, 「뱃놈」의 가능성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본다. 제주도에 일생을 걸고 쓸 수 있는 작가가 나타나길 대망하면서, 이번 백록문학상에 응모한 등 푸른 문청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수상소감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소설 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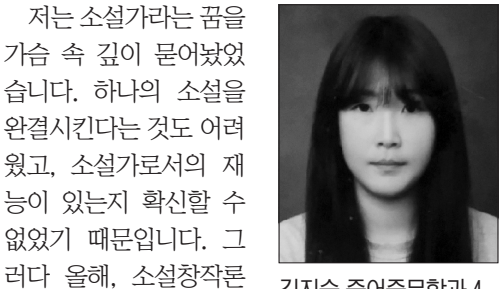
김대현 국어국문학과 3

부족하고, 또 부족한 작품을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뱃놈’이 가작으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당황스러움이 앞섰습니다. 솔거오던 저의 모습을 남들 앞에 보여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독자들 나 자신에게, 희망을 심어주기보다는 절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설이 끝난 이후, 주인공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독자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뱃놈’을 쓸 때에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

소설가라는 오랜 꿈 향한 자신감 얻어



김지숙 중어중문학과 4

저는 소설가라는 꿈을 가슴 속 깊이 묻어뒀습니다. 하나의 소설을 완결시킨다는 것도 어려웠고, 소설가로서의 재능이 있는지 확실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올해, 소설창작론 수업을 통해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내내 완결만이라도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공모전에 낸 제 소설이 이렇게 가치가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성 소수자들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면서, 저 또한 그들에 대한 소설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쓰게 된 소설이 바로 <애자>입니다. <애자>는 제 처녀작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도 많았을 겁니다. 제가 소설 속 인물 중 가장 애착이 가는 건 ‘수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연

이의 이율배반적인 감정을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수연이의 이런 행동들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지만, 잘 표현 됐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연이를 옹호해 주다 보니 더 애착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비로소 한 시름을 놓습니다. 제게서 적은 가능성이라도 보였기에 이렇게 당선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많이 미흡한 글인데도 이렇게 뽑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가슴 속 깊이 묻어 둔 꿈을 밖으로 조금씩 꺼내려고 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저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모자란 글이지만 언젠가는 정말 관찮은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숙씨의 가작 ‘애자’는 제주대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http://news.jeju.ac.kr).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나. 나도 그때는 일한다고 신경 못 쓸 때였으니…….”

이제까지 같이 살아온 저 인간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때, 이제 이해가 간다. 혈육이라, 아버지라, 매를 맞아도, 병신이 되어도 견뎌왔었다. 그래야만 했다.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다. 깊게 고민할 이유도 없다.

“고모, 그럼서, 고모말대로 이 비린내 나는 연을 끊어보게마삼.”

3

드디어 뱃고동 소리가 시원스레 항을 올렸다. 겨울해

무 때문에 출항이 2시간이나 늦어졌지만 해가 뜨니 해무도 점차 얹어졌다. 명숙고모와 나는 부산행 배에 몸을 실었다. 이곳을 정갈로 떠나는 것이다.

“고모, 소주 한잔 하젠마삼?”

한번 거하게 취하고 싶었다. 술을 마시면 웃음이 난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잔뜩 취해 크게 웃어보고 싶었다. 더 이상 술 못 먹는 척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술푸대 아들이 아니다. 그저 한번 거하게 취하고 싶을 뿐이다.

“매개라(어머나), 너 술 먹을 줄 알았냐?”

나는 괜히 미숙해져 대답대신 웃음만 <6면에 계속>

짓고는 소주를 사러 갔다.

명숙고모와 한 잔, 두 잔 주머니 받거니 하다 보니 어느새 사 온 소주가 바닥이 났다. 명숙고모는 더 이상 못 먹겠다며 객실에 누워 잠을 청했다. 나는 취기를 가라앉힐 겸 뱃머리로 나왔다. 배는 피도를 가르며 힘차게 질주하고 있었다. 담배를 하나 입에 물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술에 취하면 웃음이 난다고 하는데 낯술이라 그런지, 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웃음이 나지 않았다.

“하! 하!”

역지로 소리를 내어 웃어보았다. 이런 내가 우스워 웃음이 났다.

“하하하하!”

역지로 웃는 내가 우스워 웃고, 그것이 웃긴 내가 또 웃겨, 웃음이 났다.

“하하하하!”

이젠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난 뱃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뱃놈이라고 생각했던 내 과거가 너무나 우스웠다. 아버지 행세하며 매질하던 그 인간의 모습도 우습고, 자기 살자고 피도 안 섞인 사람에게 날 말긴 인간도 우스웠다. 내가 배를 타면 만선이 된다고 철썩 같이 믿었던 서면삼촌도 여간 웃긴 것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가장 웃긴 것은 나였다. 술 못 먹는 행세하던 내가 웃겨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쯤 되니 난 거의 때죽때죽 구르면서 웃고 있었다. 웃느라 숨을 못 쉬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 다. 안 그래도 사람들은 내가 컷병신, 손병신이라 흘끗웃웃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나는 그래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부산항에서 내려 차를 타고 4시간 정도 내륙으로 이동해 목척지에 도착했다. 주변은 한적한 시골마을로 분위기가 M리와 비슷했다. 명숙고모는 다 쓰러져가는 건물의 지하를 가리켰다. “저기가 오늘부터 네가 일할 곳이야. 여기서부터는 제주도 사투리 쓰지 마. 최대한 여겨 사투리를 쓰고, 안되면 서울말이라도 써. 여기서 우리 고향 출신인 게 도움될 거 하나 없다.”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갔다. 제주에서도 타지의 말을 쓰는 사람을 보면 우선 경계하고 뵈던 것이다. 여기라고 다르지 않을 테

다.

내가 할 일은 간단했다. 아침 9시쯤 출근해서 야간 근무자와 교대를 한 뒤, 게임장 청소를 했다. 그 후부터는 환전소로 들어가 손님들이 가져온 코인을 상품권으로 바꿔주었다. 환전소는 돈을 잃고 행패부리는 사람이 많아 얌은 유리로 막혀 있었고, 서로 코인과 상품권을 바꿀 수 있게 아래쪽엔 반원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있었다. 얼핏 보면 때표소와 비슷하게 생겼다. 손님들은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에서 이기면 코인을 받았다. 그 코인을 내가 상품권으로 바꾸어주면 게임장 맞은편에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곳에 가 다시 현금으로 바꾸기를 반복했다. 다른 내가 할 일은 행패부리는 사람을 막는 일이었다. 자기가 돈을 다 잃고는 내 돈 내놓으라며 난리를 피우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혼졸을 내주어 쫓아내는 일이다.

처음 며칠은 어른들에게 큰소리를 내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아무리 행패를 부렸던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자 그것도 곧 익숙해졌다. 내가 그들이 행패부리는 것을 막지 못하면, 손해가 여간 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용성아. 아니, 용성씨. 이러지 말어. 응? 한번만, 한번만 봐줘. 내 다신 안 그렇게. 내가 쓴 돈의 반만 돌려줘.”

“아저씨, 돈 없으면 여기 오지를 말고, 집에 가서 처자식이나 보세요, 사람 성질나게 하지 말고, 똘-”

진심이었다. 돈이 썩어나게 있지 않으면 이곳에 오지를 말아야한다. 집에 가서 처자식을 보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었다.

4

바지사장이 3번 바뀌었다. 단속에 걸릴 때마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그저 여기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라고, 이게 불법인지도 몰랐다고 잡아땀다. 바지사장이 바뀔 때마다 우리도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처음엔 바로 옆 김천으로, 그 다음엔 전주로, 이번엔 목포다.

환전소 업무는 코인 수에 맞추어 상품권만 발급해주면 되는 일이었기에 어렵지 않았다. 문제는 행패부리는 사람인데, 나는 이미 그쪽으로는 베테랑이었다. 웬만한 덩치가 아니고서는 내게 함부로 덤비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곤 상품권 발급뿐이었다.

일이 심심하니까 슬그머니 다른 생각이 났다. 이발소 거명삼촌. 거명삼촌은 참 좋은 분이였다. 어쩌면 그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하얀 셔츠를 멋지게 다려 입고는 거명삼촌 옆에서 이발을 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어쩌면 나만의 이발소 ‘용성 이발소’를 차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내 오른쪽 손을 보았다. 흔적만 남은 엄지 손가락은 언제보아도 좋다. 그렇지만 나의 왼손에는 아직 엄지손가락이 붙어있었다. 빗이아 조금만 훈련하면 엄지손가락이 없어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이쯤 생각이 드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졌다. 왼손잡이용 가위를 쓰고 계속 연습하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나에게 남은 것은 시간밖에 없었다.

급한 마음에 인터넷에 ‘왼손잡이용 가위’라고 검색했다. 가격이 두 배 비싸기는 했지만 감당 못 할 정도는 아니다. 다음은 ‘왼손잡이 이발사’라고 검색했다. 사람들은 왼손잡이 이발사가 불편하긴 하지만 노력만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쯤 되니 가슴이 터질 듯이 흥광했다. 이제, 다음 검색어는 ‘목포 주변 이발학원’이었다.

“코인 바꿔주라.”

컴퓨터에 정신이 팔려있던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환전소 유리 구멍 안으로 손이 속 들어왔다. 간만에 보는 베테랑 뱃놈의 손이었다. 까무잡잡한 피부하며, 흰 손가락, 낯빛바늘에 굽힌 수많은 흉터가 그간의 경력을 말해주고 있었다. 고기 꽤나 잘 잡을 손이다.

“아시(동생)야, 뭘했어? 코인 바꿔주라.”

나는 놀란 티를 내지 않기 위해 애를 썼다. 익숙한 말이었다. 제주도 출신인 게 들통 나면 동향사람이니, 제주도 어디 출신이니, 하며 친분을 쌓으려고 할 것이고 나중에는 제주도사람끼리 사정 좀 봐달라고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나는 코인을 받고는 알맞은 값을 쳐서 상품권을 건넸다. 사내는 상품권을 받고는 획 돌아섰다.

흠-

이번에는 놀란 기색을 참을 방도가 없었다. 사내의 바른쪽 귀가 찌그러져 있었다.

〈끝〉

특별기고

오월 무적(霧笛), ‘여행’



나기철
시인

학당실에 가서 상을 받고, 상금은 잘 쓴 기억이 난다.

‘내 너를 데왔으니 이제 떠나도 좋다./ 검은 캔버스에 푸른 달 하나 차분히 깔고 있다./음악을 들으런? 여행자들이./깃대는 있는 대로 다 세워도 좋다./지금 파도는 한 구석에서만 나폴렌다./저 바다에 유록빛 화살표를 던져주마./어디선가 이제 珊瑚礁산호초가 잠을 깨고 있을 것이다./너희는 결코 다른 이들에게/보여만 주고 가는 여행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나는 작은 태양 하나를 船尾선미에 달아 주련다.’(旅行景 전문)

‘71년 고교를 졸업하고 재수 후 대학에 들어가서도 괜히 적응을 하지 못해 중단을 하여, 다시 다음 해 3월에 어쩔 수 없이 2년 후배들과고 다니게 되었다. 생활이 제대로 안 되었다. 고교 때부터 이어온 간헐적 시작(詩作)만이 나를 끌어주는 유일한 통로였다.

제대신보에 당선작과 소감, 심사평이 나왔는데, 심사평에는 응모작에 대한 소감만 있을 뿐 당선작에 대한 평은 없었다. 당시 시는 강동원, 김시태, 소설은 김영화 교수가 주로 심사를 했다.

‘투고된 작품 수는 거의 100여 편에 달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였다고 하겠다.

이만큼 학생들의 열의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양보다 질에 있어 이전보다 훨씬 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이 갖는 불만은 크다. 지나친 욕심일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요약해 보면 대충 다음과 같다. 첫째, 시는 어디까지나 언어의 분위기에 의한 전달이라고 하겠는데 너무도 메마르고 딱딱해서 서정이 스며들 틈을 주지 않는다. 둘째, 시의 제작이 지나치게 기술화될 때, 시는 없고 시의 형식만이 남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심사위원 일통)

학교 밖 제주 문단은 한국문인협회 제주지부가 결성되어 몇 년이 지나 濟州文學’을 몇 호 내고 있었고, 가끔 중앙 문단에 등단하는 회원의 축하회를 제주은행 본점 아래 ‘금탑’에서 열곤 했다.

5월이면 사라봉 등대에서 울려오는 무적(霧笛) 소리에 이끌려 흥연 서부두로, 어디로 가곤 했다. 그 막막하고 허전한 가슴을 가로막힌 제주 바다 불빛에 녹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대문학회원 후배 김승립(국교, ‘76, ‘77, 시 가작, ‘86 외국문학시 등단), 이석범(국교, ‘76, ‘77, 소설 가작, 입선, ‘88 문학과비평 소설 등단)이 있었다. 허영선(식공, ‘80 심사시 등단)은 서귀포에 있었다. 문무병(국교, ‘77 시 가작, ‘90 문학과비평 시 등단) 선배는 군에 갔다 와서 1년 후배가 되어 있었다. 문무병은 여전히 데카당했고, 이석범, 김승립은 날카로웠다. 강방영(영교, ‘77 시 가작, ‘82 시문학 등단)은 잠정했다.

제주대학원 다니며, 그 때 받은 제대문학상이 유일하게 내 존재의 증표였다. 뒤죽박죽, 너무 허허로웠다.



세대 뛰어넘은 진심어린 소통 중요

대중음악과 청년정신

임진모 / 음악평론가

싸이의 성공은 ‘B급’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싸이는 한국사회가 원하는 비주얼은 없지만 아이디어와 기획력, 그리고 스스로 쌓은 진짜 재능이 있다. 우리사회 모두가 ‘A급’만 바라보고 있다. 모두 비주얼에 단단히 중독됐다. 대중문화도 마찬가지다. 대중문화는 딱딱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벗어나 위로와 힐링을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미디어에는 온통 멋있는 사람들뿐이다. 싸이가 빌보드를 휩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공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당당히 “내가 B급이라서”라고 답했다. B급이란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광대의 모습이다.

싸이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다른 덕목은 바로 겸손이다. 싸이가 한 대형 음악페스티벌에서 인터뷰 질문이 왜도하자 주춤하며 “싸이가 시간이 없어서 인터뷰를 길게 할 수 없다”고 말하자 오히려 대신 사과하며 친절하게 인터뷰에 응했다. 살아가는 데 오른팔과 왼팔이 있다. 오른팔이 재능이라면 왼팔은 겸손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나를 대신할 대체자가 많기 때문이다. 기고만장하고 다니면 언젠가는 큰 좌절을 맛보게 된다.

◇더 겸손하고 더 노력해야

대중문화의 성패는 젊은 세대의 감성에 달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음악의 주체가 노년이든 중년이든 청춘들의 감수성과 접점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코 트렌드로 발전하지 못한다. 뚜렷한 흐름으로 상충하려면 젊은이들의 지지와 호감이 있어야 한다. 서태지의 출현은 90년대 한국 대중문화에 충격을 가져왔다. 서태지 이전에도 랩(Rap)은 존재했다. 그러나 이는 영어를 고스란히 가져온 랩이었다. 그 누구도 랩을 한국어로 부른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서태지는 발라드가 주류였던 한국 사회를 도발했다. 또



“젊은 청춘들은 꿈을 꾸고,

꿈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꿈꾸지 않는 사회에

희망으로 물든 내일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겨운 것, 새로운 것을 원하는 10대와 20대의 키워드를 정확히 짚어냈다. 그의 음악은 과격적이었고 간여있던 청년들의 에너지는 뜨겁게 달아올라 뿔어져 나왔다. 서태지는 청년들의 도발, 도전, 창의, 과격을 대변했다. 그렇기에 서태지의 음악을 거부한다면, 이는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과 같다.

지난해 조용필의 ‘바운스’ 열풍도 10대와 젊은층의 성원이 절대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용필 스스로도 “새로운 나, 또 다른 나를 찾고자 했다”며 대놓고 젊은 음악 쪽으로 갔다. 최근 중견 가수들 사이에서 모처럼 형성된 ‘한번 해보자’는 활기는 단순히 그때의 음악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서태지나 조용필 모두 자신만의 꿈을 실현시킨 음악가들이다. 젊은 청춘들도 꿈을

꾸고, 꿈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꿈꾸지 않는 사회에 희망으로 물든 내일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결국은 젊은 세대와 소통이다

나의 20대 시절에는 하고 싶은 것만을 하고 살았다. 오로지 음악만 들었다. 집안이 어려울 때도, 학점이 바닥을 쳤을 때도 음악만 듣고 또 들었다. 그러나 지금의 20대들의 얼굴엔 불안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하고 싶은 것, 뜻과 자아가 있어도 현실의 벽은 20대에게 불안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운다. 요즘 20대들에게 꿈과 로망이 없다고 말하는 데,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기성세대로서 학생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20대들이 취업 등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한 기성세대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대학 다닐 시절에는 초등학교조차 안 나온 부모가 많았지만 자식의 대학진학률은 30%를 웃돌았다. 곧 이들이 부모세대가 됐다. 과거에 부모들 역시 자식을 사랑하고 잘되길 바랐지만, 배움의 끈이 약해 조직적으로 아이들을 지배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 시대의 부모는 배울 만큼 배웠다. 아이들을 지배하여 부모가 쳐놓은 틀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든다. 아이들의 것은 아이들의 것으로 남겨줘야 한다. 고등학교를 겪지 않고 완전하게 자란 아이들이 계 세로운 것, 도발적인 것, 과격적인 것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미래로 직결된다. 정제되고 도태되기 쉽다. 안정만을 추구하는 사회에는 도전정신이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20대가 기성세대 ‘폰대’들을 비하하고 거리를 두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편파에 여러분을 발탁하고 기회를 주고 출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 나이 든 사람 곁에 안 가는 것이다. 20대들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폰대 짓을 더 하려는 것이다. 청년세대들이 기성세대와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정용복 팀장

기업을 만드는 기업가정신

백기락 / 크레벤 대표

학생들이 취업을 못하는 이유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또 회사를 감동시키려 들지도 않는다. 면접을 볼 때도 5~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이 친구를 뽑아야지’라는 강한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 도전은 남들이 안 하는 걸 미러하는 것이다. 국토대장정, 자전거하이킹 같은 얘기는 면접에서 절대로 해선 안된다. 이미 남들이 다 한 것을 말하면 그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 받는다.

◇독서량 보면 자신의 앞날 보인다

지난 1년간 책 몇 권을 읽었는지 되돌아 보라. 하버드대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보통 100권의 책을 읽는다고 한다. 하버드대 학생들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4년 동안 공부한 대가일 뿐이다. 자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공부를 통해 지혜를 터득하고 지식을 익힐 수 있다. 지혜는 혼자서 책과 사색을 통해서나 여럿이 모여 토론하는 과정에서 깨달을 수도 있다. 지식 역시 책을 읽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독자적 공부와 상호의존적 공부는 서로 보완적이기 때문에 함께 시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바람직한 공부는 여럿이 모여서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다. 공부 안되면 다른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공부보다 2~3배 집중하면 졸업할 때 큰 성과가 나온다. 사람들은 무엇을 할지를 고민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한다. 이 길 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면 바로 다른 길을 결정해야 한다.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못 내다 본다고 하지만 10년 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계획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계획에 성공하고 실천한다면 10년 후를 내다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



“자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독자적 공부와

상호의존적 공부는

서로 보완적이기 때문에

함께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을 수 있다.

나 역시 실패한 경험이 있다. 대학 2학년 이던 1998년 벤처기업을 창업했다. 전화 모뎀을 이용한 PC통신이 유행하던 무렵 당시 로선 개념도 생소한 전자상거래(e-business)를 창업모델로 삼았다. 공급화학이 전공이어서 기업경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이듬해 학교를 그만뒀다. 하지만 2001년 10억원을 날리면서 사업에 실패했다. 사업에 실패하고 2년 뒤 크레벤을 만들었다. 발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에 국내 최고의 강사와 무조건 강의를 같이 하고 강의 동영상만 만들어 팔았다. 당연히 명강사와 비교가 됐지만 깨지면서 배운다고 생각했다. 당장 실행해야 할 몇 가지 행동준칙이 있다. 전제는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 는 생각부터 해야 한다. 오늘 강의가 끝나면 수업 받는 사람들끼리 최선을 다해 연락처를 주고받으라. 굳이 팔리가지 말고 같은 학

교 학생들과 의논해라. 작은 힘이 모이면 큰 힘이 된다.

◇우선순위를 찾고 가치를 높여라

시간이 부족해서 뭔가 하나에 집중하려면 그만둬야 할 일이 있기 마련이다.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찾고 가치를 높여라. 자기경영이다. 강점과 약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만큼은 남에게 절대 지지 않는 것 하나는 있어야 한다. 반대로 아무리 해도 안되는 게 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잘하는 사람과 손잡으면 된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게 시간관리의 핵심이다. 시간관리의 성공여부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 습관, 기술 등에 달려 있다. 자기경영은 곧 시간을 다루는 전략인 것이다. ‘시간은 돈’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적다. 지금 당장 가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보라. 이를 생활화해야 한다. 사전 계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후 평가다. 사후 평가만큼 사전 계획의 허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후 평가는 좀 더 나은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주어진 시간의 1%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의 삶은 보다 유쾌해진다. 하루의 1%면 15분 정도다. 1%를 투자하지 못하면 어제의 99%를 반복할 뿐이다.

우리들에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다. 주어진 시간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게 시간이 없는 원인이다. 그날 해야 할 일을 점검하는 데 하루 15분 사용하면 3시간을 벌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올바른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5가지 원칙은 첫째, 진심이 담긴 사명과 비전을 바탕으로 주어진 일이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좋아하는 일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 일이 우선이다. 셋째는 기왕이면 파급효과가 큰 일을 우선시해야 한다. 넷째는 주어진 시간의 1%를 우선순위를 찾는 데 사용한다. 끝으로 일을 하는 데 함께하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정용복 팀장

교수시론



현정석
경영정보학과 교수

“
전화위복을 만들어 내려면
시스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유해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자
”

전화위복이란 말은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고사성어를 말한다. 시스템의 한 곳에서 해로운 작용이 생겼다면 어딘가 다른 곳에서 유익한 작용이 있을 수 있다.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서로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 전화위복을 이끌어내려면 해로움 속에 숨어있는 유익함을 찾아내는 유연하고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상자 밖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해로운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 전화위복의 창의성은 문제를 큰 그림에서 바라볼 때 발휘된다.

2010년 안드레 가임과 콘스탄틴 노보셀로프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이들의 수상업적은 탄소 원자 한 층의 그물망 모양으로 이뤄진 2차원 나노물질 그래핀(graphene)을 발견한 것이다. 흑연은 탄소를 6각형의 벌집 모양으로 층층이 쌓아올린 구조를 갖는다. 흑연의 가장 얇은 한 층을 떼어내면 그래핀을 얻는다. 그래핀의 두께는 0.2나노미터이다. 100억분의 2미터 정도로 엄청나게 얇다. 그래핀은 구리보다 100배 이상 많은 전류를 보내고, 강철보다 강도가 200배 이상 강하고, 반도체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빠르게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다. 또한 투명하고 휘거나 늘려도 전기적 특성을 유지한다. 그래핀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나 읽는 컴퓨터 그리고 고효율 태양

전화위복의 창의성

전지에 들어가는 차세대 품의 신소재이다.

가임과 노보셀로프는 흑연에서 그래핀을 추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썼다. 그들은 스카치테이프를 흑연을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그래핀을 분리하는데 성공했다. 유튜브 동영상에서 스카치테이프를 그래핀을 분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임과 노보셀로프가 처음부터 이 방법을 쓴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 가임과 노보셀로프는 흑연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스카치테이프를 붙였다가 떼었다. 떼어낸 스카치테이프는 휴지통으로 향했다. 몇 년간의 작업 끝에 가임과 노보셀로프는 문득 쓰레기통에 버려진 스카치테이프를 보고 아이디어를 내었다. 버려진 스카치테이프에 묻어 있는 흑연을 관찰해보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가임과 노보셀로프는 책상 위의 흑연이 아니라 휴지통의 스카치테이프에서 노벨상 아이디어를 찾았다.

아이스 와인은 일반 와인보다 훨씬 달아서 맛있다. 아이스 와인의 유래는 포도밭에 서리가 내려 포도가 얼어버린 데서 시작한다. 농부는 언 포도를 그냥 버리기 아까워 차마 버리지 못하고 이것으로 와인을 만들었다. 그 결과 단맛이 나서서도 신맛이 조화를 이루는 이전 와인과 전혀 다른 와인이 탄생했다. 포도가 얼게 되면 물성분만 얼어붙고 얼지 않은 과즙에

당분이 농축된다. 추운 날씨가 포도를 얼게 했지만 다른 한편에는 포도의 당도를 더 높이는 역할도 했다. 추운 날씨로 얼어붙은 포도에도 농부는 낙심하지 않았기에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와인을 만들었다.

대형 컨테이너 선박은 프로펠러를 돌려 배를 움직이게 만든다. 프로펠러가 돌면 바람개비 모양으로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 소용돌이 물살은 곧바로 나아가지 않고 회전하며 나아가기에 그만큼 물살의 저항을 받아 속도가 느려진다. 우리나라 조선회사는 컨테이너 선박의 프로펠러 뒤에 비행기 날개를 달았다. 프로펠러에서 생긴 소용돌이 물살이 비행기 날개를 만나 물에 뜨는 힘을 만들었다. 배가 물에 뜨는 양력 만큼 물의 저항이 줄어든다. 프로펠러 뒤에 비행기 날개를 단 아이디어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연료를 약 5%나 줄였다. 프로펠러 회전에서 생기는 해로운 회전물살이 배를 뜨게 만드는 유익한 작용을 한다.

해로움을 이로움으로 바꾸는 전화위복을 만들어 내려면 시스템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 켈렌 켈러가 말한 것처럼 닫힌 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열린 문을 바라봐야 한다. 현재 처한 상황이 좋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유해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는 것이 전화위복의 창의성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동문칼럼



장윤식
식품공학과 82학번
제주4·3평화재단 연구원

채 피어보지도 못한 꽃잎들이 무더기로 수장된 세월호 참사 앞에 모두 할 말을 잊고 있다. 할 수 있는 게 뉴스를 보며 눈물 흘리는 것이 전부라며 한숨짓는 이들도 많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절망했으리라. 승객의 안전이 위태로움을 감지했으면서도 가만히 있오라 하고 저들만 빠져 나온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선박직 직원들의 행태에 분노하고,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해경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무능함에 절망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이익 때문에 기준치를 넘는 과적 등 안전시스템을 무시한 선박회사와 그 실질적 소유자

에 대해 치를 떨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이 참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였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보다는 부와 권력이 소중하고, 실제 부와 권력 앞에서는 주눅든 삶만이 있는 잘못된 사회구조에 의해 저질러진 참살과도 같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전국에서 촛불을 켜고 있다. 비악일 수도 있지만 재앙과도 같은 세월호 참사 앞에서 66년전 제주 섬에서 벌어졌던 광란의 4·3학살극을 떠올려본다. 물론 사건의 성격이나 희생규모 등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병폐처럼 지적되는 과거 교훈에서의 망각을 얘기하는 것이다. 4·3사건 당시 제주는 해상까지 봉쇄된 고립무원의 섬이었다. 당연히 섬 밖에서 도움의 손길은 닿지 않았다. 이렇듯 간헐 섬에서 무참한 학살극이 벌어졌고 2만5000~3만여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당했다.

그러나 세월호는 어떤가. 300여명의 넘는 소중한 생명이 갇힌 커다란 배가 침몰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혹은 TV로 지켜보면서도 배 밖에서 누구 하나 구조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다만 안타깝게 쳐다보는 무수한 눈길이 있었을 뿐. 그래서 세월호 참사가 더욱 안타깝다. 대명전지에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해경·해군의 장비와 인력은 물론 민간인들 등 주변 자원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배를 빠져 나온 사람들만 건지고, 배 안에 갇힌 사람들을 아무도 구하지 못한 참사가 안타깝다.

잊지 말자고 한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크고 작은 해상사고가 있었다. 자연재난도 많았지만 대부분 인재였다. 그때마다 잊지 말자고 했다. 다시는 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억하자고 했다. 그러나 잊히고 말았다. 천박하고 추잡한 자본이 우리를 망각의 늪으로 끌어들었고, 어느새 그 검은 늪에서 많은 사람들은 안주해 버렸다. 올해 4·3사건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지만, 맘 터놓고 4·3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불과 십 수 년 전이다. 그때까지 아픔과 진실은 망각을 강요당했다. 만약에 1948년 그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학살의 진실을 드러내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한국 전쟁 전후 100만에 달하는 전대미문의 민간인 희생이 벌어졌을까. 과거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되었을 때는 더욱 더 커다란 희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왜 역사에서 힘없는 민초들이 부당한 권력 앞에 수없이 쓰러지고, 추악한 돈벌이 앞에 무수한 국민들의 희생이 반복되는지 분명히 밝히고 단죄하고 기억해야 한다.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덧없는 희생에 대한 살아남은 자의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거니와, 집단 트라우마에 허우적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독자 의견·투고를 받습니다

원고 보내실 때 이름, 학과,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5천원을 드립니다.

☎064) 754-2277 ~ 2279 이메일 press@jejuu.ac.kr

교권 추락은 대체 어디까지

독자기고



이준호
충청컴퓨터교육원 중2

교대생이라면 누구나 ‘교권 추락’, ‘땅으로 떨어진 교사의 권위’ 등과 같은 단어를 접해봤을 것이다. 과거에 존재했던 두사부일체라는 하늘같은 스승의 은혜라는 말들은 전부 옛말이다. 오죽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고소대상 1순위, 더불어 뽐 맞는 1순위라는 농담이 나올까.

이는 초등학교 교사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닌, 모든 대한민국의 교사들에게 닥친 현실이다. 교대생의 입장으로 이런 현실을 대하면 한숨이 먼저 나온다. 초·중·고등학교 12년을 보내며 부모님 다음으로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담임선생님이다. 선생님은 고3 시절을 보내며 방황하던 내게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고 때로는 부모님처럼, 때로는 정말 친한 친구처럼 내 곁에 있어 주셨다.

이에 나도 누군가에게 멋진 인생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교육대학에 입학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 과연 내가 이런 환경에서 교사란 직업을 선택한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자괴감마저 생긴다.

요근래 SNS에서 ‘아간자율학습을 도망갔다 고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게시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네티즌들은 이 게시글에서 아간자율학습은 말 그대로 자율학습인데 교사가 너무 심했다는 주장과 학생들을 통제하는 건 교사의 전권이라는 의견으로 갑론을박을 펼쳤다.

각종 루머가 인터넷상을 휩쓸었지만 결국 이 사건은 처벌을 받은 학생이 학내의 유명한 문제아였으며 담임선생님의 수 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반 분위를 망치는 학생임이 밝혀지며 논란이 종결됐다. 하지만 이 사건 중에 네티즌들이 교권에 대해 논하는 의견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교사의 처벌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을 강압적으로 다루는 악습이 내려온 것일 뿐이라는 의견, 심지어 교직에 있는 사람들이 ‘철밥통’이 되니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비판을 넘은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었다.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불행하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동네북만도 못한 신세인 것이다. 입시제도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교사들은 좋은 먹이감이다. 각종 학력평가에서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할 경우에 교육부의 압력을 받는지 물론이거니와 아래에서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솟구친다. 고입 시즌이 끝날때는 더욱 가관이다. 본인 자식의 못난 점을 절대 인정하려 들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만 돌리는 사람들. 그 다음 단계는 고등학교 교사의 능력은 믿을 수 없다며 사교육이란 풍토에 자기 자식을 범벅시키는 학부모까지 존재한다. 아간 자율학습을 빼달라, 내 신성적을 수정해줄 수 없느냐고 엄지없는 부탁을 일삼는 것은 이미 기본이다.

교사란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라는 의미를 지닌 교사는 이미 죽었다. 소비자가 왕이란 말 대신 이제는 학생이 왕이라는 단어를 택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젊은 여교사에게 성희롱을 일삼는 고교생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은 여교사가 웃을 단정하게 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이곳은 진정 이상한 나라가 아닌가.

기자수첩



강서운
엔론홍보학과 1

대학생들은 취업, 장학금 등 여러 부수적인 요인 때문에 토익 시험을 준비한다. 입사 조건에 특정 점수대를 요구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장학금을 받으려면 필수적으로 토익점수를 제출해야 하는 학교도 존재한다. 이에 대학생과 토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하지만 최근 학생들은 토익만을 강요하는 사회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첫 번째는 비용 문제이다. 토익 강의료는 천차만별이지만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월 90만원 이상의 고액이 들기도 한다. 좁게는 강사가 단기간에 토익 고득점을 올려준다는 홍보에 넘어가 몇 백만원의 투자를 하는 학생도 있다.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 고득점을 받는다고 토익에서 해방 되는 것도 아니다. 토익 점수는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3년 전에 본인이 토익 만점을 받았다 한들 다시 한번 토익을 응시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토익을 한 번만 응시하는 학생들은 없다.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 최소 3번 정도는 시험을 치른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평균 토익준비기간이 6개월 정도라고 한다. 한 달에 10만원이 들고 응시를 3번 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총 비용이 72만6000원이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최소 비용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두 번째는 실생활 적용에 힘들다는 점이다. 토

익 점수는 한 없이 올라가는데 학생들의 영어회화 실력은 제자리 걸음이다. 토익 만점을 받은 대학생이 영어회화에 한계를 느껴 다시 영어회화 초급 강좌를 수강한다는 웃지 못할 사례도 심심치 않게 뉴스로 접하게 된다.

토익점수와 회화 실력의 반비례 현상 때문에 삼성에서는 채용조건에 토익점수를 폐지하고 스피킹실력을 보는 오픽과 토익스피킹으로 대체했다.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기업인 삼성에서 이것을 폐지한 것을 보면 토익점수가 영어실력을 판가름 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토익에 힘겨워 하는 대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먼저 시험 응시료에 국비지원을 해줘야 한다. 현재 많은 토익학원에 지원이 되고 있지만 시험 응시료에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적게는 일 년에 한번, 많으면 한 달에 한 번꼴로 시험을 치른다. 그렇기 때문에 응시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토익 교육의 커리큘럼에 회화수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토익은 문법 중심의 수업이기 때문에 회화수업을 많이 접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독해나 듣기에 비해 회화 실력이 부족하다. 지금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토익점수와 회화 실력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회화 중심의 과목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많은 거창하게 토익이라 칭하지만 결국 미국의 기준으로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평가하는 시험일 뿐이다. 뭇든지 지나치면 독이 된다. 토익의 늪에 빠져버린 대학생들, 이들을 구원해줄 손은 어디에 있을까.

원희룡 도정, 특별자치도 민선 6기 행정조직 개편

소통·일·협치 중심과 더불어 더 큰 제주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6기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선 6기 첫 조직개편은 협치와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의 실현을 위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공무원들이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4년 상반기 자체 실시한 조직진단을 기초로 입안된 조직개편은 행정환경 변화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기구를 일 중심으로 재편했다. 대신 공무원 정원은 증원없이 동결했다. 주 내용은 대외협력과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 환경·경제부지사를 정부부지사로, 서울본부는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했다. 또 도지사 직속으로 정책을 보좌할 협치정책실을 설치한다.

정부부지사는 도민소통과 의회협력, 육지부 주요기업 투자유치,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대외협력에 전담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행정부지사의 경우는 기획·자치행정·복지·건설 등 도 전반의 행정을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대도민 소통과 의회협력을 정부부지사가 전담함으로써 도민과의 협력을 통한 협치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원만한 대의회 관계를 정립한다는 취지다.

서울본부장의 경우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함으로써 예산 절충, 특별법 개정 등 제주의 현안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재외도민을 비롯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더 큰 제주 건설에 발맞춰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그 동안 도지사를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정책특보 및 도서지역 특보들이 부서별로 소속을 달리하고 있어 보좌기능이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보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도지사 직속의 협치정책실을 설치하여 각 정책 보좌기능을 통합함으로써 도민협치에 대한 보좌기능을 강화한다.

금번 조직개편이 마무리될 경우 분청 기구는 13실국에서 12실국으로 1국이 감축되고, 사업소는 현행 18개 사업소가 15개로 조정하는 등 조직이 효율성을 갖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소통과 대외협력 강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운용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며 “7월 3일자로 입법예고를 실시해 의견수렴을 한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8회 도민 발명경진대회

우수작에 특허출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발명혁신을 고취하고, 지식재산권 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8회 제주특별자치도민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도민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응모 방법은 제주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본 경진대회는 제주자치도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제주지식산업센터와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주관한다. 올해 8회째를 맞는 대회는 2007년도에 최초로 개최됐다. 학생부, 일반부, 기업부, 창업부 4개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초·중·고등부로, 일반부는 도민(개인)과 대학생으로, 기업부는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통해 별도로 진행한다. 창업부는 창업예 희망하고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개인발명 또는 공동발명 등의 형태로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발명(단, 출원 중인 경우는 가능)이면 가능하다. 수상 작품은 대학교수·변리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우수 입상작품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지원한다. 또한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서에 대한 멘토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 고장 역사 찾기 사업

민간기록물 보존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민간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해 08년부터 ‘내 고장 역사찾기’ 사업을 추진, 주요 민간 기록물 3,524건을 수집했다.

수집된 주요 기록물의 대외적 활용을 위해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검토를 마치고 오는 7월중으로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자료집 발간대상은 고문서, 증명서류, 간행물류, 사회단체(마을)기록물류, 개인(가족)기록물류, 사진기록물류, 기타 등 총 7종의 100여건이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민간분야의 중요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다. 또한 자료집 발간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기록물 수집 홍보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학술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수집한 기록물에 대해 적극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여성행복 잡카페

7월 10일 상록회관에서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김희정)는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내 기업과 구직 희망여성을 연계하는 2014여성행복 잡카페를 7월 10일 오후 1시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상록회관 4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사무, 서비스, 판매·관리직, 조리사, 아동교육관련 등 분야에서 총 20개의 구인업체가 참여해 취업정보 제공 부스를 운영한다. 이 중 10개 업체는 인터뷰를 통해 그 자리에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현장면접 테이블’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구직자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 이미지를 컨설팅해주는 ‘취업시스템’ 프로그램과 이력서 사진 무료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참여를 원하는 구인업체 및 구직자는 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grossbrot@hanmail.net) 또는 팩스(064-753-8092)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여 무료이다.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와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구인기업과 구직여성 간의 연계로 양방향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구인·구직 미스매칭 문제 해결 등으로 도내 여성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골프 전문인력 양성위해

인재개발원 수강생 모집

인재개발원(원장 이규봉)에서는 제주골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4 골프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을 운영하고 이를 위한 수강생 모집을 실시한다. 수강생 모집기간은 6월 23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제주한라대학교 홈페이지, 우편, E-mail, Fax 전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미취업 고교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미취업여성 및 다문화가족여성, 새터민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남자는 18~50세, 여자는 40세 이하인 자로 제한한다. 또한 골프경기보조원 및 종사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30명에 한해 선착순 모집한다. 면접은 7월 18일 한라대 금호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7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4주간 진행되며 매일 오전 4시간 교육으로 제주한라대학교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실시한다. 이론교육은 총 2주차 교육으로 스코프산업학 스캐디실무 스코프 에티켓과 규칙 △서비스교육이 진행된다. 현장교육은 스코프스텝·현장실습 등이 진행된다.

이규봉 인재개발원장은 “골프 전문인력을 양성해 골프장 인력수급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

정리=강수빈 기자

>> 평화의 섬으로 가는 길 - 대만을 가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의 현장

4·3의 완전한 해결 위해 대만 2·28사건 들여다보아야

대만 국민의 끈질긴 노력으로 보상·국가기념일 제정

한류열풍의 아시아 진원지 ... 관광 열기 후끈

제주대신문의 ‘평화의 섬으로 가는 길’ 대만 취재팀은 지난 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에 위치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의 현장을 돌아봤다. 취재팀은 한류 현장과 대만의 2·28사건 등을 중심으로 취재했다. 대만 2·28사건과 제주 4·3사건은 공통적으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영문도 모른채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1947년 2월 수만명의 대만인중이 국민당 정부의 폭정에 항거하다 참혹하게 살해됐다. 2월28일 학살이 시작돼 ‘2·28사건’으로 부르는 이 대만판 ‘4·3사건’은 독재 정권 40여년간 금기시되면서 ‘민주화 운동’도 ‘항쟁’도 아닌 ‘사건’으로 남아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대만과 외교관계를 끊은 지 22년째 되는 해다. 중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은 1992년 8월 대만이 단교를 통보하면서 양국의 공식 관계는 끝났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과의 경제적 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양측은 2003년부터 상호 비자를 면제(30일)했으며 2012년 7월부터는 무비자 체류 기간을 90일로 연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대만인은 2008년 35만여명에서 지난해 58만여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한류와 한국경제 성장에 따른 무역 증대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과 대만의 무역액은 2000년 128억9500만 달러에서 2012년 269억2060만 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젊음의 거리에 넘치는 한류

취재팀은 제주와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를 하루 한차례 운항하는 대만국적기를 타고 1시간 50여분 만에 타이베이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선 타이베이를 대표하는 거리와 광장을 살펴봤다. 찾아나선 곳은 대만대 교정과 시먼딩(西門町) 거리, 스린(士林) 야시장이다. 이 나라 최고 명문대인 대만대와 젊음의 거리, 야시장. 이들 공간에서는 공히 한국이 이야기되고 있었다. 한류의 핵심은 역시 한국대중가요(K팝)와 드라마였다. 현지 방송표를 보니 유독 한국 드라마 방영 숫자가 많다는 점이다. 대만의 3대 드라마 채널인 GTV·동선(東森)·웨이라이(緯來)에서는 이런 한국 드라마가 넘쳤다.

타이베이의 젊음의 거리인 시먼딩 거리는 평일 낮시간임에도 수많은 이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시먼딩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한류 상품들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서 있다. 현장 입구에는 한국 연예인들의 브로마이드 사진과 노래들이 외부 스피커를 통해 들려지고 있었다. 좀 더 걸어가면 음반가게는 물론이고, 책을 파는 서점에서도 각기 다른 한국 노래가 자주 들렸다. 골목으로 들어섰더니, 이번에는 크고 작은 한국 표시가 선명한 음식점과 옷가게들도 다수 나온다. 가게의 주인은 대부분 대만 사람들이다. 주재원과 유학생을 포함하더라도 교민이 3000명 정도인 대만에서, 한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여기고 가게를 운영하는 교민은 흔치 않을 것이다.

밤에 찾은 곳은 타이베이 시 북부에 위치한 스린 야시장. 타이베이에서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스린은 의류와 화장품, 액세서리 등 각종 잡화를 취급하는 상점과 끝없이 늘어난 포장마차에서 판매하는 이국적인 간식거리로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다. 자정이 가까워 오는데도 음식을 먹고 생활용품을 사는 사람들은 한국 CD와 DVD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들 변화가 탐방에 이어 둘러본 곳이 타이베이 중앙역 앞의 학원 밀집지였다. 승전, 편입학, 외국어 학원이 많은 중앙역 인근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곳이 한국어 강좌였다.

◇역사의 아픔 간직한 2·28기념관

1947년 초의 대만은 불만과 동요로 들쭉거렸다. 대만에서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들과 해방과 함께 들어온 중국인들이 뒤섞인 가운데 국민당 대만 총통 천이는 강력한 수탈과 차별 정책을 폈다. 담배, 설탕, 차, 종이, 시멘트 등을 국유화하고 몰자 상당수를 공산당과 내전 중이던 본토의 국민당으로 보냈다. 원주민 언어 대신 북방식 중국어를 ‘국어’로 선포했고, 원주민의 공식 진출을 가로막았다. 몰자 부족과 부패가 맞물려 물가는 수십, 수백배로 뛰어 올랐다.

발단은 2월 27일 타이베이 시내의 한 담배 행상이었다. 전매총국 직원들이 밀수 담배를 팔던 행상 린지앙메이의 담배와 전 재산을 빼앗자 여인은 단속원들에게 온정을 호소하며 사정했지만 항의하는 그의 머리를 권총으로 내려찍었다. 다가오는 군중을 향해 단속원들이 발포했고, 한 시민이 사망했다. 이튿날 군중은 전매총국 타이베이 본국을 점거하고 서루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헌병대는 비무장 군중에 총을 난사했다. 분노



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시위대는 경찰서와 행정기관을 점령하고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대만인의 자치권과 진압군의 항복을 요구했다. 항쟁은 타이베이를 넘어 대만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 갔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갔다. 시민들은 경찰서와 관공서를 습격하고 방송국을 점거했다.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당황한 행정장관은 구속자 석방과 발포 금지, 사건의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였다. 3월 4일 천이 총통의 요청으로 국민당 군대가 대만에 상륙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그날 밤 라디오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 군대는 무차별적인 진압에 돌입했다. 통행금지가 내려진 가운데 길거리에 보이는 사람은 그대로 총을 맞고 쓰러졌다. 군인들은 집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잡아들였고, 골목에는 시체가 쌓였다. 산으로 도망친 주민들은 추격군에 붙잡혀 죽어갔다. 그해 5월 16일까지 대만 전역에서 수만명이 학살됐다. 피해자 규모가 1만~2만명이라는 이야기부터 10만~20만명이라는 추정까지 나온다.

‘2·28사건’은 1995년 대만 총통 리덩후이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국가 차원의 배상을 약속하면서 전세계에 알려졌다. 리덩후이 총통은 이전부터 정부 산하에 2·28사건 연구와 해결방안을 위한 전담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1991년 1월 정부 행정원(총리실) 산하에 ‘2·28사건 전담 소위원회’가 구성됐고, 이 기구가 1년여의 진상조사를 거쳐 1992년 2월 ‘2·28사건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40만자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사건의 배경, 경위, 진압과정, 피해상황 등을 기록한 본문 2권이다. 당시 관련자의 증언과 역사자료 등을 담은 방대한 분량의 자료집 10권으로 구성됐다. 이 보고서는 정확한 사망자 숫자를 집계할 수 없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사망·실종자가 1만8000~2만8000명으로 추



2·28 화평공원 내에 옛 참의원 건물을 보수한 2·28국가기념관이 있으며, 내부에는 당시 역사자료들이 전시돼 있다(사진 위). 평일 낮시간임에도 타이베이 시먼딩 거리에 한류 상품들을 파는 가게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사진 아래).

정된다고 밝혔다. 그 이전에 대만 군 당국이 밝힌 사건의 피해자는 사망 408명, 부상 2131명, 실종 72명에 불과했다. 대만 입법원(의회)은 1995년 2·28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법안을 통과시켜 1인당 최고 대만돈으로 6백만위안(약 1억8천만원)까지 보상해 주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1997년 대만정부는 종전 참의원 건물을 ‘2·28국가기념관’으로 마련했고, ‘2·28기념우표’까지 발행했는가 하면 교과서에도 2·28사건을 등재하기에 이르렀다.

어떻게 보면 제주4·3사건 보다 더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2·28 과거사를 정리한 셈이다. 그러나 38년의 계엄령 기간에 2·28사건은 금기시되면서 사건의 피해자도, 기록도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대만 영화감독 허샤오시엔은 1989년 ‘2·28사건’을 다룬 첫 영화 <비정성시>로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탔다.

정용복 팀장

>> 국립대만대·국립대만사범대 탐방기

대만 내 최고의 인재 양성 대학

정치가·학자 등 다수 배출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는 국립대만대와 국립대만사범대, 대만정치대 등 대만을 대표하는 3대 국립대학이 모여 있다. 국립대만대학교는 누구나 인정하는 아시아 최고 대학이다. 이 대학의 영향력을 두고 ‘대만은 대만대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와 조선포브가 아시아 17개국 491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국립대만대학은 13위를 차지했다. 또 이 평가에서 국립대만사범대는 역대 없는 대규모 종합대학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다. 양 대학은 모두 아시아 학계 평가와 교원당 논문 수, 논문당 피 인용수, 교원당 학생수, 졸업생 평판도, 국제화 등 모두 6개 분야 성적에서 골고루 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립 대만대학교 정문에 들어서면 야자수 병풍 속 아늑한 캠퍼스가 눈 앞에 들어온다. 그 정면에 중앙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다. 야자수 뒤쪽에 아기자기하게 늘어진 건물은 대부분 일제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정부의 허락을 얻어 야 건물공사가 가능할 정도로 건물마다 역사와 이야기가 간직돼 있다.

대만은 원주민과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이주민을 중심으로 이민족인 네덜란드와 스페인, 청나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대만을 형성했다. 현재에도 10개 원주민이 나름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 수용 태도는 대만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만이 구조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세계에 자국을 개방함으로써 전세계 경제자유의 선도자가 됐다. 인구가 2500만명인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건설한 중소기업 융위기 때도 경제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같은 대만이 만들어지기까지 인재

공급의 역할을 한 대만대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고 있다. 1928년 개교한 ‘타이베이 제국대학’의 후신인 대만대는 1945년 11월 교명을 ‘국립대만대학’으로 바꿨다. 지금은 대만 내 학술연구 중심으로 자리 잡아 순수 학문과 연구·사상의 자유라는 가치 아래 인문학·사회과학·생물과학·물리과학 등 4대 영역에서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현재 11개 단과대학에 54개의 학과와 96개 대학원이 들어서 있다. 대만대는 세계 유명 대학들과 학술협정을 맺는 등 향후 20여년에 걸쳐 초일류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대만대의 저력은 졸업생들의 면면을 통해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대만정부가 이끌었던 천수이볜(陳水扁) 총통과 지금의 총통인 해양법 학자 마잉주(馬英九) 전 타이베이 시장이 모두 이 대학 출신이다. 이 밖에도 주요 정치 지도자와 각 지방자치단체장 중 절대 다수가 대만대를 나왔다. 특히 법대 졸업생들은 대만을 이끄는 핵심이다. 대만국립대 학생들은 대만의 미래를 대표하고, 나라를 이끄는 든든한 힘으로 다가온다.

국립대만사범대는 대만성립사범학원이 전신으로, 1946년에 설립됐다. 1967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뀐후 줄곧 대만 중등교육의 근간을 이루었다. 대만사범대는 교육, 문과, 이과, 예술, 과학, 스포츠·레저 등 6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돼 있다. 25개 학과(석·박사 포함)와 18개 독립연구소(대학원)가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전만 해도 문학, 사학, 철학 분야의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많은 한국 유학생이 있었지만 최근엔 크게 줄어들었다.

타이베이시의 화평동로에 위치한 사범대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공자상을 만날 수 있다. 공자는 대만에서 당대의 스승이자 국민교육의 사표로 받아들여진다. 문자철(文致哲)로 불리는 문학, 사학, 철학은 중국 전통학문의 핵심을 이룬다. 사범대는 이 방면에서 뛰어난 학술적 업적을 쌓고 있다.

정용복 팀장



국립대만대와 국립대만사범대의 정문.

함께하는 도전! 행복한 대학공동체

제주대 동문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교육위원

강정식

김정학

박원철

이선화

강성균

김광수

부공남

위성곤

강시백

김명만

손유원

하민철

강익자

김영보

신관홍

허창옥

고용호

김용범

안창남

현정화

고충홍

김태석

이기봉

홍경희

구성지

김희현

이상봉

홍기철